

artv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www.snart.or.kr

2025 April & May
Vol. 180

살펴보기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미리보기
밤베르크 심포니,
야쿠프 흐루샤 & 김봄소리

아티스트 토크
작가 김남표

사라진 디자인
동독 디자인 유산을 찾아서



artv

2025 April & May

Vol. 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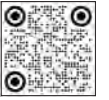
성남문화재단



C

ONTENTS

2025 April & May
Vol.180



더 좋은 <아트뷰>를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SPECIAL

- 04** **살펴보기 1**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06** **스케치**
'꿈꾸는예술터'
강좌 현장을 가다
- 14** **살펴보기 2**
성남미디어센터 AI 교육

VIEW

- 18** **미리보기 1**
밤베르크 심포니, 야쿠프 흐루샤 & 김봄소리
- 22** **미리보기 2**
성남아트리움 작곡가 시리즈: 모차르트 I
- 24** **미리보기 3**
2025 성남작가조명전 II
김남표 <누가 회화를 두려워하라>
- 26** **다시보기 1**
바리톤 크리스티안 게르하허
리사이들
- 30** **다시보기 2**
호폐쉬 쉼터의 <꿈의 극장>
- 34** **아티스트 토크**
작가 김남표

CULTURE +

- 44** **공연장 옆 영화관**
영화 <걸어도 걸어도>
- 48** **트렌드**
'텍스트힙' 다음
'라이팅힙'이 온다
- 54** **사라진 디자인**
동독 디자인 유산을 찾아서

SEONGNAM +

- 64** **성남의 얼굴**
국악 창작자 남경우
- 70** **성남아트센터 개관 20주년**
성남아트센터, 20년의 기록
- 78** **성남아트센터 탐구생활**
성남미디어센터 미디어도서관
- 80** **성남아트센터 가이드**
캘린더+맵
- 86** **5월의 큐레이션**
프로그램 가이드
- 91**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안내**
- 92** **SNART News**

성남문화재단 격월간 <아트뷰> Bimonthly Art & Culture Magazine | 2025년 04+05월호

통권 180호(비매품) 2025년 4월 17일 발행 | 등록번호 성남, 마 00015 | 등록년월일 2005. 9. 12 | 간별 격월간
발행처 성남문화재단 소통전략부 | 이사장 신상진 | 발행인 윤정국 | 편집인 장동환
기획·편집 남소연 nam@snart.or.kr | 교열 이지수 |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성남아트센터
전화 031-783-8024 | 홈페이지 www.snart.or.kr | 편집·디자인 오니트(주) 02-337-3690 | 인쇄 더프레스

<아트뷰>를 온라인으로 만나 보세요.



<아트뷰>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게재된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성남문화재단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인쇄물은 친환경 용지(랑데뷰 내츨렐, 미스틱, 그린라이트)와 친환경 공기를 인쇄로 제작되었습니다.

배우고 만들고 즐기는 취향 존중 예술 클래스

Art &

04 살펴보기 1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06 스케치
'꿈꾸는예술터'
강좌 현장을 가다

14 살펴보기 2
성남미디어센터 AI 교육



Cul- ture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Edu- cation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금, 배우러 갑니다

미술, 음악, 영화, 공예... 다양한 예술 장르를 사랑하는 애호가라면 한 번쯤 창작의 열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예술 강좌에 대한 갈증을 느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자녀들을 위한 교육 검색에는 열심이지만 막상 스스로를 위한 시간에 인색했던 이들, 취향에 맞는 강좌를 찾고 있는 이라면 성남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자. 공간과 장르, 수준별 다채로운 선택지 속에, 그동안 찾아 헤매던 인생 강좌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글 남소연 성남문화재단 소통전략부 과장

아카데미: 이론부터 실기까지 한자리에서

먼저 살펴볼 곳은 성남아트센터가 개관한 2005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전통의 배움터, 아카데미다.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의 베이스캠프 격인 아카데미는 오랜 역사만큼 차곡차곡 쌓인 교육 노하우, 신뢰도 높은 강사진과 커리큘럼이 강점이다. 심도 있는 학기제 배움을 지향하는 아카데미의 성인 강좌는 감상 인문 강좌 그리고 음악·미술·무용 실기 강좌로 진행된다. 클래식 음악의 집중 감상과 탐구, 미술과 미술사 그리고 컬렉팅까지 미술 전반을 아우르는 감상 인문 강좌는 폭넓은 문화예술 소양을 갖추고 싶은 이들에게 언제나 호응이 높다. 건반·목관·현악·성악 등 다양한 입문·심화 과정들로 구성된 음악 실기, 현대미술·수묵채색화·수채화·유화·드로잉 등 미술 실기, 한국무용과 체형 교정 발레 등 무

용 실기 강좌 역시 인기다. 각 분야에서 명망 있을 쌓아 온 예술가들이 전문 강사진으로 함께 하며 나만의 예술세계로 향하는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음악 실기 강좌를 듣고 싶지만 당장 악기를 구매하기 부담스러운 입문자라면 큐브플라자에 위치한 악기 대여 시설 '악기랑'을 기억하자. 저렴한 가격에 현악기, 관악기 등 다양한 악기를 대여할 수 있다.

꿈꾸는 예술터: 쾌적한 공간, 색다른 강좌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꿈꾸는예술터'(이하 꿈터)는 옛 영성여중 본관 건물을 리모델링, 2020년 개관한 전국 최초의 지역 거점형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이다. 세대를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예술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만큼, 다양한 예술이 어우러지며 학교·지역사회·예술가가 유기적으로 협력



수정구에 위치한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성남꿈꾸는예술터'

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직 꿈터의 존재를 모르는 시민들에게는 낯선 시설로 느껴질 수 있지만, 유아부터 실버 세대까지 누구나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니 부담 없이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자.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 수는 아카데미보다는 적지만, 도예·작곡·아이들을 위한 업사이클링 목공 등 색다른 구성이 강점이다.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한 덕에 넓적하고 쾌적한 공간과 기자재들 역시 꿈터의 자랑거리다.

성남미디어센터: 세상의 모든 미디어

성남아트센터 큐브플라자에 위치한 성남미디어센터는 미디어를 매개로 한 강좌와 영화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오디오(라디오), 영화·영상, 사진 등 분야별 기본 강좌들 외에도,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춘 트렌디한 라인업도 대폭 강화했다. 생성형 AI로 광고와 그림책, 29초 단편영화를 만들거나,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인 AI 활용 업무 효율성을 익히는 등 AI 각각 키우기에 안성맞춤이다.

본격적인 크리에이터로 성장을 꿈꾼다면 <성

남AI+영화학교>(가제)를 추천한다. AI·뉴미디어·영화 제작에 관심 있는 성남시민과 경기도민 대상으로, 기존 어법의 영화뿐만 아니라 AI 활용 영화까지 다채로운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시민 크리에이터를 양성한다. 미디어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3개 분야의 미디어 콘텐츠(AI·미디어아트·영화) 제작 교육이 과정별 10~15차시로 진행되고, 마지막에는 직접 만든 콘텐츠를 발표하며 성과를 공유한다. 이 중 AI 부문은 AI 기반 영화와 광고, 비주얼 아트워크, 청소년을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 등 다양한 세부 과정 중 선택해 신청이 가능하다. 프로젝션 매핑을 배우는 <미디어아트>, 극영화 시나리오와 다큐멘터리 과정 뒤 실제 제작 워크숍 레벨업 과정으로 진행되는 <영화제작>까지, 크리에이터를 꿈꾸고 있다면 5월 초 모집 공고를 주목해 보자.

아카데미 snart.or.kr 031-783-8156

악기랑 ilibr.snart.or.kr 031-783-8159

성남미디어센터 snmedia.or.kr 031-724-8370

꿈꾸는예술터 snarte.or.kr 031-240-9102~3(강좌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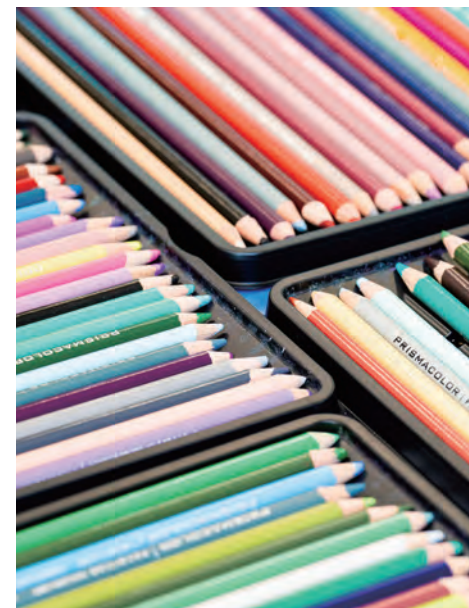
‘꿈꾸는예술터’ 강좌 현장을 가다

‘나’를 위한 문화예술



오전 10시,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에 자리한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꿈꾸는예술터’. 봄별 가득한 1층 이미지랩에서는 알록달록 화사한 그림책들, 색연필 상자들 사이로 수강생들이 손그림 스케치에 한창이다. 도란도란 따뜻한 홍차 한잔을 나누며, 서툴지만 진심을 담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완성하는 <살롱 드 그림책> 현장은 예술이 선사하는 기분 좋은 온기로 가득했다.

글 남소연 성남문화재단 소통전략부 과장
사진 최재우



기억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법

강좌 2회 차인 오늘은 그림일기 차례. 글과 그림을 곁들인 하나의 장면을 창작하고 나만의 색채를 찾아보는 시간이다. 수강생들이 시각예술작가 김지원 강사의 지도에 따라 기법과 기본 스케치를 연습하는 동안, 강사는 수강생들이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스타일의 그림책을 예시로 꼼꼼히 준비했다. 강경수 작가의 『거짓말 같은 이야기』는 차분한 색감을 잘 활용한 책, 레오 리오니는 컬러감이 돋보이는 책, 회화를 전공한 이수진 작가의 책은 회화적인 느낌을 잘 살린 사례라는 설명을 덧붙인

다. 저마다의 개성 가득 색감을 지닌 책들은 페이지를 넘겨 보는 것만으로 직관적인 이해를 돕는다.

“빨강도 모두 같은 색상이 아니에요. 무당벌레의 빨강과 꽃의 빨강이 다르듯 저마다의 레이어가 존재하죠. 여러 그림책 속 명도와 채도 차이를 느끼며 자신만의 색을 찾아보세요. 꼭 화려한 색이 전부는 아닙니다. 대니 그레고리의 『모든 날이 소중한다』를 보시면, 색이 없는데도 색이 느껴지죠? 색채 사용에 자신이 없다면 드로잉만으로도 멋진 표현이 가능해요. 결국 흰색도 색이거든요.”

오늘 수업의 주 도구는 색연필. 진하게 혹은 흐리게 자유자재로 농도를 조절하며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수강생들은 강의실에 준비된 백여 가지 색상의 색연필 중 각자 마음에 드는 색상을 골라 채색을 시작했다.

“어떤 그림책이든 대부분은 메인 컬러가 존재해요. 이 사람은 이 색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색을 사용하는구나 느낄 수 있죠. 컬러 선택은 곧 책의 스타일을 정하는 과정이니, 여러분의 그림책 속 주조색을 떠올려 보세요. 과학계 많은 종류의 색보다는 메인 컬러와 서브 컬러 3종류 정도, 또 포인트는 ‘강강강’이 아닌 ‘강약’이라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사각사각, 고요한 강의실이 연필 소리로 가득

한 지 얼마나 지났을까. 이제 모두의 작품을 함께 감상하는 시간이다. 각양각색의 신발 여러 켤레, 할머니와 개나리, 길거리 떡볶이를 먹는 아이들의 모습 등, 다들 각기 다른 이미지를 그려 냈다. 이미지도, 색상 취향도 다르지만 무엇을 표현했는지, 왜 이 색상을 골랐는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기억을 자연스럽게 공유하고 공감한다. 그림을 매개로 일상의 치유를 경험하는 순간인 것이다.

“동심으로 돌아가기 힘든 나이가 된 지금, 떡볶이를 먹는 아이들을 그리면서 잠시나마 제 어린 시절을 다시 떠올릴 수 있어 좋았어요. 머릿속엔 그림이 다 있는데 마음처럼 표현이 되지 않아 아쉬울 뿐이네요(웃음).”



이미지도, 색상 취향도 다르지만
무엇을 표현했는지, 왜 이 색상을
골랐는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기억을 자연스럽게 공유하고
공감한다

“저는 시장 가는 할머니와 개나리, 철길 옆 새순을 그렸어요. 항상 개나리의 예쁜 자태를 직접 그려 보고 싶었는데요, 초보 단계에서는 샘플 그림을 꾸준히 따라 그리며 연습해 보는 것도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의 감성을 매만지는 시간

다른 날 같은 자리, 이번에는 도예 강좌다. 점박이 흙을 이용해 나만의 작품을 만드는 <손끝에서 만나는 힐링> 수업. 조물조물 흙을 어루만지는 동안 어린 시절 찰흙을 만지던 미술 시간으로 돌아간 듯, 수강생들의 입가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 2회 차 수업인 이날은 점토를 길게 늘여 일정한 두께로 쌓아 올리는 코일링(coiling) 기법을 활용한 기물 만들기가 진행되었다. 아직 흙을 만지는 것이 어색한 초보 도예가들을 위해, 정지희 강사는 수강생 한 명 한 명의 손끝을 주시하며 세심한 지도를 이어 간다.

“도예 입문자 눈높이에 맞춰 초보 수준의 기



법으로 수업을 진행해요. 개별적으로 만들고 싶은 디자인이나 기형이 있다면 개인 지도로 도와드리고 있죠. 강좌가 진행될수록 수강생들이 만드시는 기물 크기도 점점 큼직해지고 가짓수도 늘어나곤 합니다(웃음). 수저받침부터 꽃병까지 다들 취향도, 종류도 다양하죠. 꿈터 어린이 도예 강좌의 경우, 아이들이 좋아하는 ‘흙’이라는 재료의 물성을 활용한 놀이 위주 접근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의 열정에 정지희 강사의 조언이 더해지는 동안, 동그란 흙덩이들은 귀여운 미니 절구, 단아한 자태의 먼기와 연필꽃이 등 각자의 취향 가득한 형태를 차츰 갖춰 갔다. 수업 시간이 끝나도 수강생 모두 자신의 작품을 한 번 더 다듬고 만지느라 섰듯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모습. 디테일 하나하나 정성껏 손본 뒤에야 차례로 작업을 마무리하고 자리를 깨끗이 정돈한다. 이날 수업에서 빚은 기물들의

어린 시절 찰흙을 만지던 미술 시간으로 돌아간 듯, 수강생들의 입가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

건조를 위해, 정지희 강사는 흑여 작품이 섞일 세라 하나하나 꼼꼼히 수강생들의 이름을 표시했다.

수강생들이 모두 떠난 뒤, 고요함이 내려앉은 공간은 온전히 수업을 즐긴 이들이 남긴 기분 좋은 여운으로 가득했다. 그 어떤 목적이나 의무 없이 그저 ‘나’를 위한 순수한 두 시간의 몰입,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충만한 위안의 감정 - 이것이야말로 예술이 우리 모두에게 공평히 부여하는 특별한 선물인지도 모른다.

수강생들의 이야기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꿈꾸는 예술터'와 함께한 성인 예술 강좌 수강생들.
아이들을 돌보는 엄마로 정신없는 시기를 보내다,
비로소 스스로를 위한 작은 힐링을 마주한 소박한 즐거움이 전해졌다.



[손끝에서 만나는 힐링]

- ❶ 꿈터 강좌,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 ❷ 강좌에 참여한 소감

정성희 성남시 수정구

❶ 저희 아이가 미술을 좋아해서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에서 미술 수업을 듣곤 했어요. 그러다 수정구에도 꿈꾸는예술터라는 좋은 시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후론 양쪽 프로그램을 고루 살펴보며 선택하곤 합니다. 저도 평소 도예를 배워 보고 싶었는데 대부분 접근성이나 수강료가 좀 부담되어서 망설이다가, 꿈터 강좌를 알게 되어 시작하게 됐어요.

❷ 시설도 훌륭하고, 아이의 교육으로 계속 다니던 곳에서 저를 위한 수업을 들으니 참 좋아요. 오늘은 원래 수저꽃이를 만들려고 한 건데 잘된 건지 모르겠지만(웃음).... 앞으로 실력이 발전하면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서, 손님이 오시면 제가 직접 만든 테이블웨어로 대접하고 싶다는 바람이 생겼어요.

김보라 성남시 수정구

❶ 꿈꾸는 예술터는 저희 아이가 예술 수업도 듣고, 미술 공부도 하고, 때로는 놀기도 해서 자주 찾던 곳이에요. 집 근처라 성인 대상 강좌를 발견하고 관심을 갖던 차에, 먼저 수강한 지인이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예전부터 도예를 배워 보고 싶었지만 수강료나 거리 문제로 선뜻 시작하지 못했는데, 꿈터 강좌는 수강료나 접근성 모두 부담이 적었어요. 퇴직 후 마침 여유 시간이 생긴 참에 지난 학기에 처음 시작해 보니 너무 재미있어서, 올봄에도 다시 신청하게 됐습니다.

❷ 강의를 듣기 전엔 너무 어려우면 어쩌나 걱정도 많았지만, 강사님께서 친절한 지도는 물론 도전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해 주셔서 큰 힘이 돼요. 제 손으로 무언가를 빚어서 결과물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참 뿌듯한 감정이 듭니다. 저희 아이에게도 다음 학기에 꼭 도예 강좌를 추천하고 싶어요. 이렇게 좋은 공간이 동네에 있어서 정말 잘 이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꼭 전하고 싶네요.

[살롱 드 그림책]

문성희 성남시 분당구

❶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연주자로 활동하다 지금은 잠시 쉬고 있는데요, 평소 인문과 미술, 음악 등 문화예술 강좌에 관심이 많아서 성남아트센터 홈페이지를 자주 살펴보고 했어요. 그러다 이 강좌도 알게 됐죠.

❷ <살롱 드 그림책>은 차와 그림, 이야기가 함께하는 강좌 구성이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느낌이라 참 좋아요. 단순히 그림만 그리는 것이 아닌, 저마다의 생각과 어릴 적 동심을 돌아보고 이야기하는 과정들이 위로가 됩니다. 또 다양한 인문학적 지식들이 모이면 결국 그림과 다른 예술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전공인 음악과 다른 예술을 접목한 융복합 작업에도 관심이 많아서, 이런 배움을 바탕으로 앞으로 다양한 시도를 해 보고 싶습니다.

황윤미 성남시 중원구

❶ 아이를 위한 수업을 찾다 꿈터 강좌를 알게 됐어요. 아이 도예 수업을 신청하는 참에 그림책 강좌도 등록하게 됐죠. 사실 저를 위해 무언가를 배워 보는 건 대학 졸업 후에는 가질 수 없었던 시간인데,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고 나니 저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짬이 조금 생겨서 즐겁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❷ 미술 전공자는 아니지만 평소 디지털 드로잉도 좋아했고, 아이에게 그림책을 많이 읽어 주다 보니 자연스레 관심이 커지더라고요. 아이들 그림책이 언뜻 가벼운 내용일 것 같지만, 의외로 철학적인 메시지를 던지면서 어른들에게도 깊이 생각할 거리를 주거든요. 한편으로는 세상을 떠나신 제 어머니와의 기억을 그림책으로 남기고 싶은 소망도 있어요. 저희 아이도 외할머니와 참 각별했기에, 엄마를 추억하는 그림책을 직접 만들어서 아이와 함께 그 기억을 간직하고 싶어요.

성남미디어센터 AI 교육

더 나은 일상을 위한 AI

최근 주변인들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죄다 비슷한 애니메이션풍으로 바뀐 점을 발견하고 의아함을 품었던 적이 있는지? 공중파 뉴스에서도 잇따라 다뤄질 정도로 전 세계적인 화제를 모은 챗GPT의 '지브리 스타일 그림 만들기' 덕이다. AI를 막연히 먼 이야기로 생각하던 이들도 지브리풍 사진 변환을 위해 기꺼이 챗GPT에 가입하면서, 3월 말 기준 챗GPT 주간 활성 이용자가 무려 5억 명을 돌파했다고 개발사인 오픈 AI는 밝혔다. 지난해 말 대비 무려 30%가 증가한 수치다.

글 남소연 성남문화재단 소통전략부 과장



이처럼 AI 기술이 산업 전반은 물론 일상 곳곳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관련 직군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AI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역량 강화 필요성은 날로 높아지는 추세다. AI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교육 수요 역시 대폭 증가했다. AI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오랫동안 현장에서 미디어융합 문화예술교육을 실천해 온 성남미디어센터 윤용훈 강사(어반아츠 프로젝트 대표)에게서 AI 교육과 관련 이슈들에 대한 설명을 들어 보았다.

AI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요?

윤용훈 전문적인 코딩 능력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쉽게 구현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작을 진행할 수 있죠.

성남미디어센터의 AI 강좌를 통해서 어떤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까요?

윤용훈 <생성형 AI로 29초 단편영화 만들기>와 <생성형 AI로 광고 만들기> 등 AI 강좌는 빅데이터를 가진 AI와 예술적 동기를 가진 인간의 협력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입니다. 미디어 창작에 관심은 있지만 복잡한 제작 과정이 부담스러웠던 분들에게 특히 추천해요. 과거에는 영화나 광고 제작에 전문 기술과 경험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생성형 AI 기술을 통해 누구나 창의적이고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 수 있죠.

이 강좌는 단순히 기술 사용법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AI를 파트너로 삼아 아이디어와 감정을 영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특징입니다. 챗GPT, 미드저니, 클링클링 등 다양한 AI 도구를 활용한 아이디어 기획부터 스토리보드 제작, 영상 생성과 편집까지 전 과정을 실습해요. 이를 통해 AI를 활용한 미디어 제작 역량을 종합적으로 키우고, 인간과 AI의 협력적 창작 경험을 통해 디지털 시대가 요구하는 혁신적인 융복합 예술 감각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로 29초 단편영화 만들기>의 경우 '29초 단편영화'라는 것이 언뜻 상상하기 어려운데요, 그 시간 안에 '단편영화'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결과물이 가능한지요?

윤용훈 '29초 단편영화'는 29초 미만의 짧은 영화 안에 완결된 이야기를 담은 독특한 영상 형식인데요, 오래전부터 진행된 '박카스 29초 영화제'로 잘 알려져 있어요. 일반 단편영화가 수필이나 단편소설에 가깝다면, 29초 영화는 짧지만 강한 여운을 남기는 시詩, 그중에서도 일본의 시 '하이쿠'에 비유할 수 있죠. 짧은 형식과 제한된 시간 속에서 강렬한 메시지와 반전을 통해 관객의 마음에 작은 파동을 일으킵니다. 물론 시간 제약으로 적합한 서사의 발견이 어려울 수 있지만, 보조작가로서 생성형 AI의 협력 그리고 창작자의 경험과 감정에 충실한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작품 제작이 가능해요. 관객에게 꼭 명확한 정답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창의성과 감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성남미디어센터 2024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중 AI 영화·광고 제작 시사회 현장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미디어 교육의 트렌드도 기술의 발달에 따라 계속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이런 변화, 또 AI 교육 수요의 증가를 체감하시는지요?

윤용훈 관련 변화는 교육 현장에서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메타버스 등 이전 세대의 미디어 교육 참여자들이 주로 기술적인 도구를 익혀 콘텐츠 제작과 수익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강했다면, 현재 AI 교육은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창작 활동’ 그 자체에 관심을 둔 분들이 많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또 기존 미디어와는 달리 경제적·예술적 활용 도구를 넘어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로도 인식된다는 점, AI가 인간을 완벽하게 학습한 이후의 미래를 두려워하는 공상과학적인

논의들이 등장하는 것도 예전과는 다른 현상이죠. 기존 미디어가 인간이 통제 가능한 도구였다면 AI는 그 이상의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더불어, 지금처럼 경쟁적 속도의 발전이 정말 바람직한지 근본적인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AI 학습 과정에서 기억할 점이 있다면요?

윤용훈 작가 황석영 등 많은 사람들이 AI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그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는 인간의 능력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인문학, 철학, 예술 등의 깊은 학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요. 결국 질문자의 능력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물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지적 역량, 창의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성남미디어센터 교육 문의: 031-724-8370

VIEW

미리보기 1

밤베르크 심포니, 야쿠프 호루샤 & 김봄소리

미리보기 2

성남아트리움 작곡가 시리즈: 모차르트 |

미리보기 3

2025 성남작가조명전 II
김남표 <누가 회화를 두려워하라>

다시보기 1

바리톤 크리스티안 게르하허
리사이틀

다시보기 2

호폐쉬 섹터의
<꿈의 극장>

아티스트 토크

작가 김남표

P R E V I E W



© Andreas Heitzau

밤베르크 심포니,

야쿠프 흐루샤 & 김봄소리

독일에서 온
'보헤미안 사운드'

오케스트라의 지리적 기반은 도시다. 콘서트홀이 있고 관객이 될 인구가 있으며 오케스트라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능력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악단들은 대개 대도시를 근거지로 하며, 작은 도시라 해도 50만 명 정도의 인구는 되어야 한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5월 31일 성남아트센터에서 공연을 앞둔 밤베르크 심포니는 인구 7만의 소도시를 기반으로 한 명문 악단이다. 인구의 10%가량이 악단의 고정 고객일 만큼 안방 시장을 확실히 점하고 있는 그들은 해외 투어와 음반 녹음 등을 통해 아름다운 도시의 문화예술을 알리고 있다.

글 양향섭 음악 칼럼니스트

밤베르크 심포니는 1945년 5월 나치 패전 시기에 체코 봉기가 일어나자 프라하의 도이체 필하모닉(Deutsche Philharmonische Orchester Prag)의 독일인 단원 일부가 이를 피해 밤베르크로 넘어오면서 시작되었다. 그들은 1946년 첫 공연을 가졌고 프라하에서 도이체 필하모닉을 이끌던 요제프 카일베르트 Joseph Keilberth, 1908~1968가 초대 상임지휘자가 되었다. 18년간 활동하며 악단을 성장시킨 카일베르

트가 작고한 후 또 다른 거장 오이겐 요훔Eugen Jochum, 1902~1987이 잠시 이끌었다. 수석지휘자 예정자였던 헝가리의 이슈트반 케르테스Istvan Kertesz, 1929~1973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후, 1979년부터 1983년까지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로프런James Loughran, 1931~2024, 1985년~96년에 독일의 호르스트 슈타인Horst Stein, 1928~2008이 수석지휘자로 활동했다. 대부분 전통적이고 중후한 독일 사운드를 추구했던 지휘자들이다.

21세기에 들어서서 영국 출신의 조너선 노트Jonathan Nott, 1962~가 수석지휘자로 활동하면서 슈베르트, 브루크너, 말러, 슈트라우스 등을 주로 지휘, 녹음하며 악단의 사운드와 프로그램밍을 현대화시켰다. 2015년 빈에서 그의 마

지막 투어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 전반부에 리게티의 <아트모스페레> <룬타노> <샌프란시스코 폴리포니>를 연주하는 사이에 고음악 앙상블이 퍼셀의 <판타지아>를 연주하고, 후반부에는 슈트라우스의 <영웅의 생애>를 연주했다. 프로그램의 야심에 어울리는 고도의 집중력이 돋보이는 명연이었다.

밤베르크 심포니는 2015년 노트의 후임으로 체코 출신의 야쿠프 흐루샤Jakub Hrůša, 1981~를 선택했다. 체코 필하모닉을 이끈 명지휘자 이르지 벨로홀라베크를 사사했고 그가 창단한 프라하 필하모니아를 20대부터 이끌며 실력을 증명한 지휘자다. '보헤미아 전통'을 가진 악단과 체코 지휘계를 대표하는 흐루샤는 독일과 체코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시너지 효과



를 발휘하며 세계 무대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2019년에는 BBC 프롬스에 출연하여 흐루샤의 주특기인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을 지휘했는데 비평가 리처드 모리슨은 “체코 민중의 모든 이야기가 음악으로 흘러나오는 것 같았다”고 평했다.

2024/25년 시즌만 봐도 밤베르크 심포니의 활동은 어지간한 일류악단 못지않다. 약 26주의 정기연주회가 있는데 대개 2회 중복 공연을 하거나 프랑크푸르트, 본, 바이로이트, 뉘른베르크, 쾰른 등 인근 도시에서도 동일한 공연을 펼친다. 흐루샤는 독일-오스트리아 레퍼토리에 더해 드보르자크, 야나체크, 마르티누, 수크 등 체코 음악을 자주 연주한다.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 크리스토프 에센바흐, 만프레트 호네크 등 명예지휘자를 필두로 조너선 노트, 안드리스 넬손스, 안드레스 오로즈코 에스트라다, 베르트랑 드비이 등 화려한 객원지휘자 라인업은 톱클래스 악단에 버금간다.

2년 전 내한해 단원들의 자발성과 지휘자의 디렉션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드보르자크 교향곡 8번을 들려줬던 흐루샤와 밤베르크 심포니는 이번에 성남아트센터에서 브람스 교향곡 1번을 연주한다. 그들은 2019/20년 시즌에 이 곡을 정기 공연과 투어를 통해 여러 번 연주한 후 녹음, 음반으로 발매했고 <그라모폰>지의 ‘이달의 음반’에 꼽히기도 했다. 악단의 아름다운 소리가 고스란히 담긴 2악장, 서두르지 않고서도 강약과 속도의 대비가 잘 살아난 4악장 등이 귀를 잡아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 © Kyutai Shim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가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을 연주하는데, 밤베르크 현지에서 합류해 호흡을 맞춘 후 한국과 대만 투어에 나선다. BBC 프롬스, 뉴욕 필하모닉 등 큰 무대에서 연주해 호평받았을 만큼 김봄소리의 주특기 레퍼토리로, 관객의 이목을 집중시킬 줄 아는 그녀의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곡이다. 서곡은 체코 작곡가 스메타나의 <두 과부> 서곡으로 코믹 오페라의 활기찬 흥취를 전달한다. 체코 명지휘자의 계보를 잇는 야쿠프 흐루샤와 독일의 부드럽고 중후한 사운드를 간직한 밤베르크 심포니의 명연주를 기대해 본다.

밤베르크 심포니, 야쿠프 흐루샤 & 김봄소리

일시 5월 31일(토) 오후 5시
장소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문의 031-783-8000

P R E V I E W



© 최재우

성남아트리움 작곡가 시리즈: 모차르트 I

천재 작곡가의 대표작을 만나다

‘천상의 음악’을 쓰는 작곡가, 모차르트! 그는 영원히 잊히지 않는 선율로 우리 곁에 살아 숨 쉬다. 성남아트리움이 ‘작곡가 시리즈’ 기획 3년차를 맞아 올해 모차르트의 대표작을 선보인다. 오는 5월, 그 첫 공연에선 바이올린 협주곡 3번과 교향곡 40번을 김성진(지휘)·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 퀸엘리자베스의 위너 임지영(바이올린)의 협연으로 만나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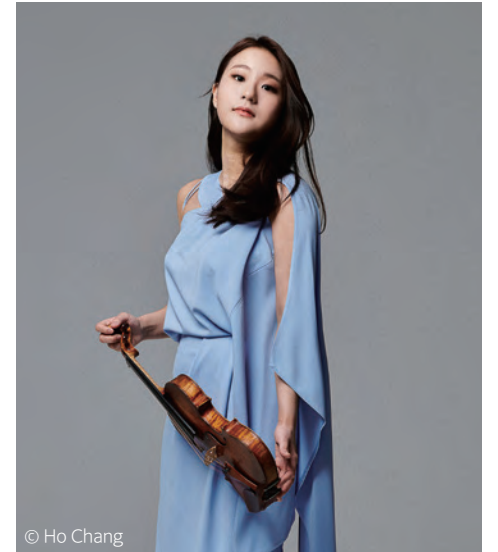
글 허서현 월간 <객석> 기자

그리 길지 않았던 모차르트의 생애^{1756~1791}지만, 워낙 일찍부터 천부적 재능을 드러냈기에 각 작품들의 작곡 배경은 다양하다. 우선 1부를 장식할 바이올린 협주곡 3번은 그가 1775년 잘츠부르크 궁정 음악가로 재직하던 때에 작곡됐다. 겨우 열아홉이던 모차르트는 그해에 바이올린 협주곡을 무려 다섯 개나 작곡하며 천재적 위상을 뽐냈다. 때문에 신동에서 작곡가로서의 성장이 돋보이는 시기로도 꼽힌다. 바이올린의 기교를 마음껏 드러내는 작품

으로, 모차르트가 뛰어난 건반주자였을 뿐 아니라 바이올리니스트였음을 상기하게 된다. 2악장 아다지오는 음악학자 알프레트 아인슈타인이 “천국의 선율을 그대로 옮긴 듯하다 *to have fallen straight from heaven*”고 표현했을 만큼 황홀하다. 악장 속 카덴차까지 소화하기 위해서는 연주자에게 특별한 연주력이 요구될 터, 20세에 퀸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의 연주가 더욱 기대된다. 그는 2017년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18·21·26번을 담은 음반을 발매하며 젊은 시절의 모차르트 음악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선보인 바 있다. 임지영의 손끝에서 피어날 모차르트 해석에 귀를 기울일 이유는 충분하다.

이어서 연주되는 교향곡 40번은 모차르트의 걸작인 마지막 세 교향곡(39·40·41번) 중 하나다. 이 세 교향곡 역시 전부 1788년에 작곡됐는데, 짧은 시간에 완성되었다곤 믿기 어려울 만큼 모두 걸작으로 꼽힌다. 특히 40번은 그의 교향곡 중 단 두 개의 단조 작품(나머지 하나는 25번)으로, G단조에 담긴 모차르트의 특별한 영감이 녹아 있다.

이 시기 모차르트는 다수의 오페라로 성공을 거뒀음에도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래서일까, 슈만은 교향곡 40번에 ‘고대 그리스적 우아함’이 있다고 말했지만, 그 이면에 담긴 격렬한 불협과 긴장감은 범상치 않다. 바그너는 이 작품을 ‘낭만주의의 중추적 역할’을 한다고 일컬었고, 음악학자 잭 웨스트럽은 ‘코미크



© Ho Chang

오페라의 영혼이 들린다’고 묘사했을 만큼 다양한 감상을 불러일으키는 마스터피스다. 비범하게 시작하는 1악장, 독특한 안단테인 2악장과 복잡한 3악장의 미뉴에트를 지나면 모차르트 음악에선 쉬이 찾아볼 수 없었던 격렬함이 등장한다. 이날의 연주를 포디움에서 이끌 김성진은 독일 유학 시절 베를린 필 합창지휘자 요르크 페터 바이글레, 베를린 슈타츠오페라 수석 오페라 코치 알렉산더 비틀린 등과 다양한 작품을 경험하며 성장했다. 그가 다수의 오페라 연주 경험을 보유한 국립심포니에서 끝낼 모차르트의 음악 어법은 무엇일지 기대해 본다.

성남아트리움 작곡가 시리즈: 모차르트 I

일시 5월 15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성남아트리움 대극장

문의 031-783-8000

P R E V I E W

2025 성남작가조명전 II 김남표 <누가 회화를 두려워하라>

‘지독한 회화주의자’의 숭고를 향한 여정

성남큐브미술관의 올해 두 번째 성남작가조명전 <누가 회화를 두려워하라: Who's Afraid of Painting?>은 동시대의 다변화된 미술 매체 속에서도 회화의 본질에 도달하기 위한 끊임없는 탐구를 이어 가는 중진 작가 김남표 1970~의 예술 세계를 조망한다. 미술계에서 ‘지독한 회화주의자’로 불리는 김남표 작가는 “회화painting에서 ‘숭고sublime’는 영원해야 한다”는 신념 아래, 지난 30여 년간 캔버스 위에 다양한 조형적 실험을 전개하며 회화의 본질을 탐구하고 있다.

글 박은경 성남문화재단 전시기획부

김남표 <Himalaya #3>, 162.2×390.3cm, Oil on canvas, 2024

이번 전시에서는 김남표 작가의 신작 회화 2점을 비롯하여, 2024년 프랑스 파리 시테 레지던시Cité internationale des arts 입주작가 활동 당시 제작한 수채화 드로잉 연작이 처음 공개된다. 19세기 인상주의 화가들이 응시했을 자연의 풍경을 김남표 작가 특유의 감성으로 재해석한 수채화 드로잉은 유화와는 또 다른 미감을 전할 것이다. 또 전시 출품작 모두 산과 바다, 즉 자연을 그린 작품이라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김남표 작가가 끊임없이 회화로 자연을 그리는 이유는 단지 풍경의 사실적인 재현이 아닌, 작가 자신이

대자연 속에서 느낀 정신적인 숭고의 경험을 순수한 미술의 언어로 전하기 위해서다. 회화는 물질적인 공간이지만, 자연의 공간과 정신적 공간을 모두 담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시 제목은 회화에서 숭고 개념을 가장 명료하게 추구한 동시에 작업 주제로 전면에 드러냈던, 미국 추상표현주의 화가 바넷 뉴먼Barnett Newman, 1905~1970의 작품 <Who's Afraid of Red, Yellow and Blue?>를 인용하였다. 예술에서 숭고 담론이 지닌 특징은 ‘지금now’이라는 시간성의 박탈을 통해, 관람자가 작품에 표현된 사건성을 체험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숭고를 경험하게 되고, 나아가 회화와 미술의 본질에 대한 사유를 제시한다. 이는 김남표 작가의 회화적 지론과도 맞닿아 있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된 숭고에 대한 철학적 담론은 근대 유럽 사상계의 큰 화두였다. 숭고는 철학뿐 아니라 예술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19세기 낭만주의 미술부터 그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며 회화의 정체성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18세기 독일 철학자 칸트의 숭고 이론이 등장하기 전까지, 예술은 단순히 인간의 즐거움을 위한 유희적인 존재로 여겨졌다. 하지만 칸트의 이론 이후 모든 예술은 철학의 일종으로 격상되었고, 칸트의 숭고 개념은 회화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사상적 분기점이 되었다. 칸트는 “유한한 존재는 진정한 숭고를 일으킬 수 없다”는 숭고의 전제 조건을 발표하며 ‘무한성’이라는 개념을 숭고와 연결했다. 캔버스 화면을 넘어선 무한한 공간을 상상할 수 있게 그려 내



김남표 <Instant Landscape - Aewol sea #20>, Oil on canvas, 162.2×130.3cm,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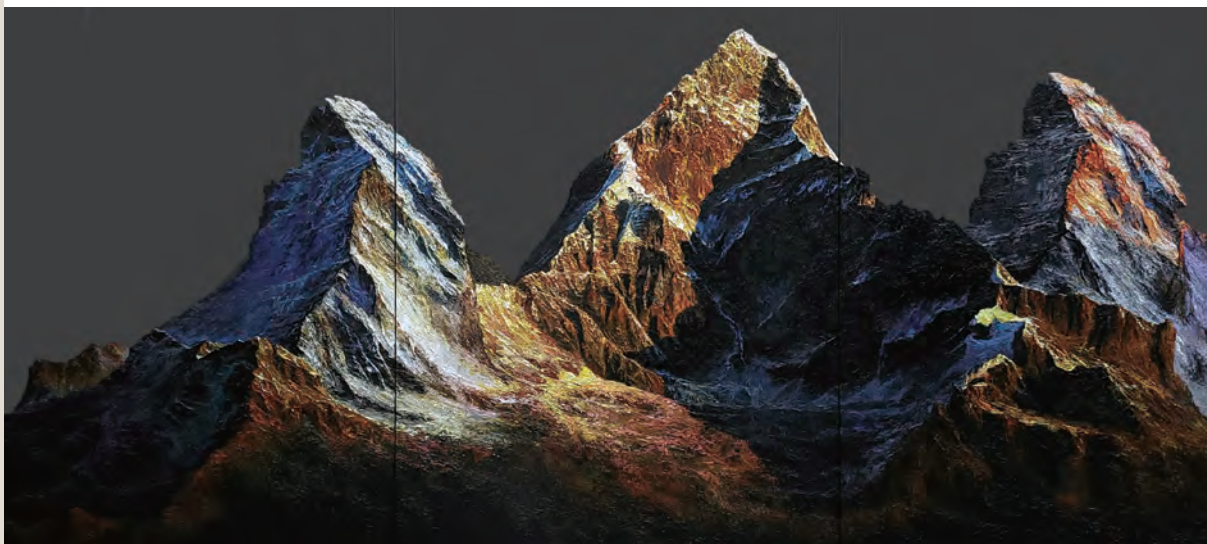
는 김남표 작가의 작업과 이러한 그의 회화성은 무한성을 강조한 칸트식 숭고를 표상한다. 특히 이번 전시에 출품된 대작 <Himalaya #3>는 작가가 직접 히말라야 등반에 참여하며 피부로 느낀 강렬한 숭고의 경험을 표현한 작품으로, 관람객은 작품 앞에서 자신만의 기억을 소환하며 저마다의 숭고를 경험하게 된다. 이는 작가가 추구하는 ‘수평적 숭고’의 실천이자 현대미술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단순한 미적 감동의 차원을 넘는 예술적 경험이 될 것이다. 20세기 발터 벤야민이 던진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의 화두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현재, 회화가 지닌 동시대적 의미와 가치를 인문주의적 관점에서 고찰해 볼 수 있는 전시가 되길 바란다.

2025 성남작가조명전 II 김남표 <누가 회화를 두려워하라>

일시 5월 16일(금) ~ 7월 13일(일)

장소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문의 031-783-8143



R E V I E W

바리톤 크리스티안 게르하허 리사이틀

아름다운 저음으로 들려준 이야기

3월 9일(일) 오후 5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명망 높은 바리톤 크리스티안 게르하허가 3월 9일 첫 내한 무대에 섰다. 슈만의 가곡을 부른 이날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스크린에는 간결하고 큼직한 우리말 가사가 새겨졌다. 관객들은 가사를 모르더라도 활자가 형용하는 시적인 오라aura가 무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덧씌워져 입체적인 감상을 향유할 수 있었다.

글 류태형 대원문화재단 전문위원, 음악 칼럼니스트
사진 최재우

게르하허는 피아니스트 게를트 후버와 함께 <다섯 개의 노래, Op. 40> 중 '3월의 제비꽃'에서부터 자연스럽고 기품 있는 목소리를 선보였다. 자극적이지 않은 미성은 내내 관객을 사로잡았다. 후버의 꿈꾸는 듯한 피아노와 함께한 '엄마의 꿈'은 게르하허 목소리의 아름다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저음은 부드러웠다. '병사'는 따뜻함이 서린 절도를 노출했고 감정 변화는 미묘했다. '악사'는 찌렁찌렁 울리는 성량에 연민을 자아내는 자연스런 서정성을 실어 냈다. '배





신당한 사랑'에서는 표현이 재치 있었다. 이어진 <아이헨도르프 시에 의한 리터크라이스, Op. 39> 중 '낮선 땅에서'는 연약하고 젊은 목소리로 섬세한 고음을 들려줬다. '간주곡'은 남자의 순정이 담겨 있었다. 후버의 구름 같은 피아노도 어울렸다. 전설을 그린 '숲속의 대화'에서는 로렐라이를 만나면 숲을 떠나지 못한다는 경고가 메아리쳤다. '고요'는 부드러운 설득력이 있었고, '달밤'은 고즈넉한 피아노가 들관과 숲을 환상적으로 묘사한 음성과 잘 어울렸다. '아름다운 낮선 땅에서'는 걱정적인 가창을 선보였고 '성 위에서'는 지친 듯 슬픔을

관조하는 표정으로 파스텔톤 고음을 들려줬다. '낮선 땅에서'는 리드미컬한 피아노가 리드했고 '근심'은 깊게 띄운 관조의 표정을, '황혼'은 해질 무렵 상념을 담담하게 띄워 보냈다. '숲에서'는 두려움과 미묘함을 공감케 했고 '봄밤'은 이날 날씨 같았던 서정을 큰 성량으로 전달했다. 2부는 <세 개의 노래, Op. 83>으로 시작했다. '단념'에서는 짝사랑에 빠진 남자의 들뜬 마음과 체념으로 연결되는 쓸쓸함을 표현했다. '체념의 꽃'은 기다림의 미덕을 담담하게 펼쳤고 '은둔자'는 고독과 소외, 지친 영혼과 안식을 떠올리게 했다.

<로망스와 발라드 3집, Op. 53>은 '블롱데의 노래'로 시작했는데 그는 흡사 고요한 이야기꾼 같았다. '로렐라이'는 부드러운 고음과 비브라토가 돋보였고 '가엾은 페터'에선 서정성과 강렬함, 체념과 절망을 다채롭게 표현했다. 프로그램의 마지막 곡은 <레나우 시에 의한 여섯 개의 노래와 레퀴엠, Op. 90>이었다. '대장간의 노래'는 말을 하듯 자연스러웠으며 '나의 장미'는 풍부하고도 낭만적인 품위가 느껴지고 따뜻했다. '만남과 작별'은 지고지순한 사랑을, '우유 짜는 아가씨'는 사랑과 삶, 갯빛 죽음의 대비를 잘 표현했다. '고독'에서 안내자의

목소리 같았던 게르하허는 '무더운 저녁'에선 슬픔 속 담담하면서도 보호본능을 불러일으켰다. 마지막 '레퀴엠'은 강렬하면서도 준엄한 사자를 위한 기도였다. 게르하허와 후버는 슈만의 가곡 '달에 부침'과 '내 아름다운 별' 두 곡을 앙코르로 선사했다. 독일 가곡 리트라는 형식이 얼마나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들어도 들어도 물리지 않는 아름다운 목소리란 어떤 것인지, 시를 감싸는 투명한 산문 같은 피아노 반주란 어떤 것인지, 게르하허의 첫 내한공연은 여실히 보여주었다.

R E V I E W

호페쉬 쉼터의 <꿈의 극장>

무의식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다

3월 14일(금) 오후 7시 30분, 15일(토) 오후 3시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꿈이라기보단 기억 같다. 머릿속에 작은 파편처럼 박혀 있던 언젠가의 기억을 한데 꺼내어 필름 조각 이어 붙이듯 기워 냈다. 지난 3월 성남아트센터를 찾은 <꿈의 극장>에서 호페쉬 쉼터는 무의식이나 꿈과 마찬가지로 미지의 숲 깊은 곳에 자리한 어둠으로 걸어 들어간다. 겹겹의 어두운 커튼을 걷어 내면 세상에 관한 경험의 조각들이 재생된다.

글 윤대성 월간 댄스포럼 편집장

웅성웅성 들뜬 객석 사이를 지나온 한 남자가 홀쩍 무대로 올라선다. 아래로 폭 꺼진 오케스트라 피트를 월담하듯 넘어서, 무대를 가로막은 검은 커튼 너머를 유추하듯 유심히 들여다본다. 낮선 공간에 들어서는 듯한 긴장감으로 경직된 뒷모습이 의미심장하다. 그는 커튼을 살짝 들추어 무의식의 세계에 발을 디딘다. 빼꼼 열린 좁은 틈에서의 춤은 현실 세계와 다르게 흘러가는 시간에 대한 기묘한 감각을 안긴다. 이후로도 무대는 다 열리는 법이 없다. 까도 까도 나오는 양파 같은 여러 겹 커튼을 정교하게 닫았다 열었다 하며 이쪽저쪽으로 만들어지는 틈 뒤에서 오만 가지 인생사를

흘려보낸다. 관객은 어둠 속에 가려지고 들춰지는 깊은 기억들, 현실 세계의 요약판을 문풍지 구멍으로 보듯 관음증적 시선으로 응시하게 된다. 그런데 무용수조차 ‘보는’ 사람이라는 점이 흥미롭다. 최초 무의식의 숲으로 걸어 들어간 남자처럼, 그들은 중간중간 정지한 뒷모습이 되어 기억을 응시한다.

계몽주의 성경이라 불리는 『백과전서』 권두화에는 베일에 꿈꿨던 채로 빛을 발하는 진리의 여신이 중앙에 서 있다. 사람으로 표현된 이성인 그 베일을 벗겨 세상에 명료한 진리를 드러내려 한다. 그런데 <꿈의 극장>은 우리 삶을 선명하게 단정할 수 없는 심연으로 바라본



©Tom Visser

다. 이성으로 단순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연, 은폐된 소용돌이 안으로 천을 한 꺼풀씩 걷어 낸다. 세상의 수많은 대답하는 것들이 이미지 파편으로 무대를 스쳐 가는 건 그래서다. 질서와 혼돈, 실재와 허상, 토대와 심연, 공포와 환상, 나와 타자^{他者}, 모든 것이 담겨 있다.

대가의 초정밀 세공이 낳은 수준작

호페쉬 섹터는 음악적 스펙트럼이 넓다. 록 스타를 꿈꾸던 드러머가 안무가로 전향했으니, 귀마개를 나눠 줄 정도로 강렬한 록 비트는 오히려 놀랄 일이 아니다. 뇌리에서 잊히지 않는 장면은 몰리 드레이크의 잔잔한 올드 팝 ‘아이 리멤버’가 흘러나올 때다.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너’와 ‘나’였다”는 가사가 흘러나오는 순간, 십자가를 그리듯 두 팔을 뻗고 선 동작이 ‘나 홀로 어깨동무’로 보이면서 군중 속에서도 서로에게 닿지 못하는 고독으로 다가온다. 마이크를 든 한국인 무용수가 “함께 춤춰요!” 라면서 관객을 일으켜 세울 때는 상황이 정반대다. 소규모 라이브 밴드가 연주하는 삼바 혹은 살사(분위기에 취해 장르가 가물가물하다)에 맞춰 객석의 1천 명 넘는 관객이 함께 여유로운 선율에 몸을 맡길 때에는 하나 되는 연대와 친근함이 차오른다. 그래서, 너와 나는 다시 ‘우리’인가? 90분 뒤, 무용수들은 각자의 자리에 멀찍이 서서 완전한 정적 속에서 몸을 움직인다. 한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함께는 아니다.

어둠이 모두 걷힌 자리에는 화려한 주름이 벗



14일 공연 후 진행된 <관객과의 대화>에서 호페쉬 섹터 그리고 진행을 맡은 무용가 차진엽. 차진엽은 호페쉬 섹터 컴퍼니에서 함께 활동했던 인연이 있다

스러운 밝은 커튼이 또 다른 세계를 향한 문처럼 남아 있다. 무용수를 포함해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조용히 그것을 바라본다. 그 너머에는 무의식을 덮은 베일을 완벽히 걷어 내 더 깊어진 심연이자 혼돈, 혹은 출구 밖 현실이 자리하고 있을 테다. 현실과 환상이 구분되지 않는 호접지몽^{胡蝶之夢}의 울림이 깊다.

객석을 떠날 때면 한 문장이 맴돈다. 정교하다! 무려 90분 동안 정교하다! 호페쉬 섹터는 춤과 음악뿐 아니라 커튼 조작, 톱 비저의 훌륭한 조명 등 공연 요소를 완벽한 하나로서 초정밀하게 세공했다. 그가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다”고 할 정도로 압전 표현이 빼어난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도 작품 감상에 힘을 보탰다.



작가 김남표

본질을 향한 여정

찌를 듯 깎아지른 절벽과 몰아치는 파도, 격렬하게 생동하는 자연의 한 자락이 마치 실재하는 풍경처럼 주변을 감싼다. 캔버스 위에 치밀하게 쌓아 올린 꺾적들은 회화의 본질을 향한 김남표 작가의 치열한 탐구의 기록이다. 그 지난한 여정의 사이마다 작가는 스스로에게, 또 세상에 질문을 던진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기억하는 회화란 어떤 모습이냐고.

글 남소연 성남문화재단 소통전략부 과장
사진 최재우

김남표의 현장은 고유한 본질을 탐구하는 여정이다. 집단 ‘막’의 이름 아래 거친 재개발 구역 현장을 누비며 공동작업에 몰두하던 젊은 시절부터 스튜디오를 벗어나 제주 바다와 히말라야 산맥을 넘나든 지금까지, 그에게 작업은 곧 현장을 의미했다. 김남표의 작품 세계 전반을 관통하는 제목인 ‘Instant Landscape’ 시리즈와 히말라야 작업들은 작가가 직접 경험한 낯것의 전율을 집대성한 작업이다. 5월 16일부터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에서 진행되는 <김남표: 누가 회화를 두려워하라>는 그가 직접 포착하고 구현한 장대한 서사의 기록이다.

“산과 바다는 회화의 기본이자 시공을 초월해 의미를 지니는 대상이지만, 막상 이 작업들을 함께 놓아 본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반달갤러리에서 선보이는 구성이 제게도 의미가 커요. 친숙한 소재지만 그 안에서 김남표라는 작가의 성향과 회화의 본질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Instant Landscape’ 연작 중 제주 바다를 포획한 자연의 모습은 즉흥성과 영속성이 공존하는 존재다. 대상 자체는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켜 온 풍경이지만, 그 결과물은 계획이나 밑그림 없이 그려 내는 즉흥의 토양에서 탄생한다. 이는 곧 불안정한 현장성 속에 순간의 표현을 포착하는 작가의 성향과도 연결된다.

“저는 ‘미술은 성향을 드러낸다’고 생각해요. 제 작업의 큰 축이 즉흥성이라는 건 저 역시 그런 성향을 지녔다는 의미죠. 작업 현장은 언제나 계획을 벗어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돌발성과 즉흥성이 좋은 자극이 됩니다.” 김남표의 현장 중 안나푸르나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존재 그 자체로 압도하는 히말라야의 까마득한 절경, 2023년 ‘박영석 대장 3차 수색 프로젝트’에 작가로는 유일하게 히말라야 등반에 동행한 뒤 작품으로 재해석한 결과물이다. 등반과는 거리가 먼 평범한 일반인이었던 그는 이 현장에서 어떤 여정과 영감을 경험했을까. “힘들었죠. 눈사태를 만나서 죽음의 위기를 겪

김남표의 자연은
즉흥성과
영속성이
공존하는 존재다



기도 하고... 또 막상 현장에서 산을 오르다 보면 고산병 때문에 그 위에선 작업이 불가능해요. 연필로 간단한 스케치만 기록하고 내려올 수밖에 없죠. 그래도 귀국 후 보고전을 찾은 전문 산악인들이 제 작품을 보며 마치 실제 현장에 선 듯 등반 포인트를 회고하는 모습에 작업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심이 됐어요. 평생 바라봤던 산을 이곳에서 만나니 좋다는 말이 큰 보람이 됐죠. 등반 과정에서 몇 주간 함께했던 현지 포터들의 모습도 안나푸르나의 존재만큼 생생합니다. 고작 몇 만원 일당에 수십 킬로그램 짐을 이고, 심지어 슬리퍼를 신고 산을 오르단... 그저 생업을 해 내는 덩든한 표정, 피부에서 산의 질감이 느껴지던 그분들을 다음 기회에는 더 제대로 그리고 싶어요.”

이번 전시에서는 지난해 파리 시테 레지던시 Cité internationale des arts 입주 당시 작업한 수채화 드로잉 시리즈도 만날 수 있다. 여유롭게 파리

를 만끽하는 대신, 현지 동료들이 ‘드로잉 머신’이라 혀를 내두를 정도로 밤낮으로 몰두한 420여 점 결과물 중 일부다.

“만약 제주와 안나푸르나 작업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힘들었겠죠. 현장에서 단련된 감각의 이어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작업을 할 때 제일 편안하거든요. 대놓고 ‘쉬자’고 생각하면 대체 뭘 해야 할지 혼란스러운데, 어쩌면 작업 안에 저만의 쉼이 있는 거죠.”

모든 표현은 손끝으로부터

김남표의 작품은 자연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시공간을 유영한다. 하나의 주제에 천착하는 대신 때로는 호랑이와 얼룩말이 등장하는 판타지, 때로는 구한말과 오후 5시의 해 질 녘 감성을 넘나든다. 파스텔에서 유화로, 수채화에서 VR로 여러 재료와 주제를 오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 최재우



“설렘’이란 단어를 좋아하지만, 오래 작업하다 보면 으레 설렘은 사라져요. 그래서 ‘설렘이 없어도 설렘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재료와 주제를 세팅하죠. 언젠가 ‘감각을 낮춘 오지에 세운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제 감각은 새로움을 만나야 예민하게 반응해요. 현장의 즉흥성과 불확실성, 각기 다른 재료와 주제 모두 창작을 위한 새로운 자극이 되어 줍니다.”

붓 대신 면봉이나 휴지, 나이프, 손가락 등 다양한 도구의 활용도 작가가 낮춘 재료와 환경을 매개로 감각을 찾아가는 방법 중 하나다. 시그니처인 면봉 작업 역시 우연히 아내의 화장대에 놓인 면봉 상자를 바라보다 ‘저렇게 붓이 많다면 좋겠다’고 떠올린 데서 시작됐다. “붓 대신 나뭇가지로 그리는 작가도 있듯이 제 각기 현장에 맞는 방식이 필요하니까요. 유화를 그린 붓은 빠르게 잘 닦지 않으면 굳어 버리는데, 야외에서 실경을 그리다 보면 차분하게 도구를 닦는 행위가 불가능한 상황이 많거든요. 그래서 면봉을 도구로 사용하게 됐죠. 면봉의 중간 부분이 나무인지, 약간의 탄력이 있는 플라스틱인지에 따라 표현 효과도 달라서, 목적에 따라 구분해 사용해요. 휴지로 넓은 여백을 채우고, 나이프로 거친 마티에르를 표현하고, 면봉으로 세밀한 터치를 이어 가죠.”

재료의 특성과 교감하고 캔버스 위에 구현하는 전 과정은 김남표의 손끝에서 시작되고 마무리된다. 목탄과 파스텔, 인조털과 같은 소재들은 아주 작은 자극에도 쉽게 변화하고 그



© 최재우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가 사랑하는 불안정한 즉흥성과 닮았다.

“파스텔은 손으로 비벼 가며 작업하는데 장시간 하다 보면 지문이 희미해지곤 해요. 캔버스 전체에 용을 사용한 작업은 바늘 스크래칭으로 하나하나 인조털을 세우기를 반복하죠. 담요의 결을 비비듯 살짝이라도 물리적인 압력이 생기면 순식간에 원복이 돼요.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몇 달이 걸린 용 작품을 싹 문질러 놓은 기억이 떠오르네요(웃음).”

그림과 회화의 경계에서

30여 년의 화업을 이어 오는 동안 김남표는 회화의 본질을 찾아가는 자신만의 묵묵한 여정을 지속해 왔다. 갤러리와 대중의 취향에 순



김남표, <Instant Landscape - Aewol sea #10>, 193.9×259.1cm, Oil on canvas (details), 2025

응하는 대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회화적 정체성을 찾는 데 집중한다. 급변하고 또 팽창하는 미술 시장 속에서 단기간의 유행에 편승해 작업하다 정작 자신의 오리지널리티를 잃어 가는 젊은 작가들의 모습은, 특히나 위험한 현상이라고 지적한다.

“미술 시장은 넓어졌는데 진짜 미술 이야기는 사라지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단어가 회화거든요. 무엇이든 그림은 될 수 있지만, 모든 그림이 회화는 아닙니다. 작업의 내면에 어떤 개념들이 존재할 때 비로소 그림은 회화가 되죠. 회화적인 조건에 대해 정해진 룰이 있지는 않더라도, 늘 그런 질문을 던지고 고민하며 그려야 해요.”

즉흥성을 사랑하는 김남표 작가지만 작업에 대한 큰 줄기의 계획은 존재한다. 히말라야를 한 번 더 오르는 것, 예술나눔 공익재단 아이프킬드런의 탄자니아 미술센터 설립 프로젝트 연계 작업도 있다. 안나푸르나에서 포터와 셰르파를 그렸던 시간이 탄자니아의 아이들과 대자연 속 동물들로 이어지는 순환 자체가 그에게는 작업의 흐름이고 서사다.

“어쩌면 이제야 미술을 아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한때 ‘닭살이 돋는다’는 의미의 ‘Goosebumps’가 제 작품의 부제였듯, 피부의 반응은 머리로 의식하는 것과 다르거든요. 직접 바라보고 체험하면서, 머리보다 피부로 느끼는 제 성향이 미술이 될 수 있도록, 그에 충실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죠.”

다채로운 탐구와 도전 중에는 NFT와 VR 등

수년 전부터 등장한 디지털 현장의 경험과 관찰 역시 포함된다. VR 디지털 드로잉 작업을 포함, 파도처럼 몰려왔다 사라지는 디지털의 물결을 마주한 경험은 NFT 예술작품과 창작의 접근법 등에 대해 생각을 정리해 가는 기회가 됐다고 작가는 설명한다.

“AI를 사용한 창작이건 온전히 사람의 작업이건, 결국 한 인간의 고유한 정체성이 중요하겠죠. 이를 위해서는 집단의 의견만이 존재하기 보다는 서로의 다양성을 배려하는 사회, 저마다의 목소리로 시끌벅적할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해요. 예술도 사회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의 오리지널리티가 사라지고 집단적인 형태로 나아가는 사회라면 예술의 앞날 역시 비관적일 테니까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매체나 트렌드는 변화하더라도,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예술의 본질과 고유성을 지켜 가는 것은 오롯이 작가의 몫이다.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에서 선보이는 김남표의 전시 <누가 회화를 두려워하라>는 그만의 시선을 통해 동시대 예술의 역할과 회화의 본질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모든 이들이 같은 풍경을 바라보더라도, 저마다의 오리지널리티가 서로 다른 무언가를 포착하고 형상화할 수 있어요. 회화의 정의와 본질은 제게도 아직은 어려운 화두지만, 이 전시가 그 질문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기 바랍니다. 저 역시 제 그림이 회화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끊임없이 되뇌며 답을 찾아가고 예정입니다.”

밤베르크 심포니

야쿠프 흐루샤 & 김봄소리

with BOMSORI

BAMBERGER
SYMPHONIKER

JAKUB HRUŠA

스메타나 오페라
<두 과부> 서곡

브루흐
바이올린 협주곡

브람스
교향곡 1번

2025.5.31.SAT 5PM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티켓 R 15만원 | S 10만원 | A 5만원 예매 인터파크 티켓 1544-8147

문의 031-783-8000

주최 성남문화재단

CULTURE+

공연장 옆 영화관
영화 <걸어도 걸어도>

트렌드
'텍스트랩' 다음
'라이팅랩'이 온다

사라진 디자인
동독 디자인 유산을 찾아서

영화 <걸어도 걸어도>

남들보다 못한,
그래서 더
애잔한 가족

일본 가요 '블루 라이트 요코하마'¹⁹⁶⁸는 흥겨운 듯 애잔한 노래다. 한국인 귀에도 익숙하다. '아루이테모~ 아루이테모~'라는 가사가 특히 귓가에 맴돈다. '걸어도 걸어도'라는 뜻이다. 일본 영화계 간판 고레에다 히로카즈Hirokazu Koreeda 1962~ 감독이 2008년 선보인 영화의 제목이기도 하다. 고레에다 감독은 저 유행가 가사에서 영화 제목을 빌려왔다고 밝혔다.

영화 <걸어도 걸어도>는 '블루 라이트 요코하마'를 닮았다. 즐거움과 슬픔 사이 어디인가에 있는 듯하다. 가족이라는 따스한 소재를 다루나 마냥 정겹지는 않다. 화면에 냉기가 서릴 때가 종종 있다. 때로는 남들보다 못한, 그렇다고 외면할 수 없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115분 동안 이어진다.

글 **라제기** 한국일보 영화 전문기자 사진 제공 **영화사 진진**

1999년 한국일보 입사 후 편집부와 사회부, 국제부 등을 거치며 엔터테인먼트 팀장과 문화부장, 신문에디터로 일했다. 2004년부터 영화를 취재해 왔으며, 영국 서식스대 대학원에서 영화학을 공부했다. 저서 『질문하는 영화들』 『말을 거는 영화들』, 역서 『할리우드 전복자들』로 영화를 사랑하는 독자와 소통하는 한편, 뉴스레터 '영화로운'으로 매주 구독자들을 만나고 있다.



영화 <걸어도 걸어도>

모이면 불편한 어느 가족

요코하마의 요코야마 집안에 오랜만에 가족이 모인다. 어머니 도시코(기키 기린)와 딸 지나미(유)는 음식 장만으로 바쁘다. 도쿄에서 차남 료타(아베 히로시) 가족이 도착한다. 지나미의 남편과 아이들도 함께한다. 명절은 아니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 막바지 또는 가을 초입이니까. 아버지 교헤이(하라다 요시오)나 도시코의 생일도 아니다. 10년 전 바다에서 소년을 구하고서 숨진 장남 준페이(기린)의 기일이다.

료타는 모든 게 못마땅한 눈치다. 집 근처에 일찍 도착하고도 일부러 패스트푸드점에 들른다. 그는 아내 유카리(나츠카와 유이)에게 "집에 가도 할 얘기가 없는걸"이라고 말한다. 그럴 만도 하다. 료타는 교헤이의 기대와 바람에 한참 못미친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의사가 되기는커녕 돈벌이가 의심스러운 그림 복원 일을 한다. 유카리는 전남편과 사별한 뒤 아들 아츠시(다나카 쇼헤이)를 데리고 료타와 재혼했다. 게다가 료타는 최근 일자리를 잃었다. 의사 준페이가 자식 없이 비명에 갔으니 료타를 향한 부모님의 눈초리는 더 따갑다.

가족이 모이니 불편하기만 하다. 교헤이는 외손자와 외손녀, 아츠시를 보고선 자기 방으로 직행한다. 자기 핏줄이 아니라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료타는 아버지의 완고함이 싫다. 준페이를 여전히 우선으로 여기는 어머니가 눈에 거슬리기도 한다. 이런 료타의 마음을 모르는 걸까, 교헤이와 도시코는 아픈 곳을 찌른다. "아이 딸린 과부는 재혼하기도 힘들어"(교헤이)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거나 "아들 둘 중 하나라도 아버지 뒤를 이어 졌으면 좋았을 텐데"(도시코)라고 한탄한다.

가족은... 아무도 모른다

료타의 가족은 무엇이 잘못된 걸까. 어디서부터 관계가 뒤틀린 걸까. 준페이의 죽음에 가족 구성원을 서로 불편하게 만든 걸까. 아니면 가족은 태생적으로 어긋나게 돼 있는 걸까.

고레에다 감독에게 가족은 거대한 물음표다. 그는 가족을 집요하게 관찰하고 영상으로 지속적으로 서술해 왔다. 때로는 피가 물보다 진하지 않다는 걸 제시하고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폭력성을 언급한다. 마냥 가족을 부정하는 건 아니다. 가족은 사람에게 종종 힘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한다.

<아무도 모른다>²⁰⁰⁴를 보자. 생계를 어렵게 유지하던 어머니가 집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는다. 열두 살 소년 아키라(야기라 유아)는 어린 동생 셋을 돌본다. 어머니는 네 남매에게 상처를 줬으나 아키라는 동생들이 있기에 삶을 버텨 낸다. <환상의 빛>¹⁹⁹⁵의 젊은 여성 유미코(에스미 마키코)는 어떤가. 남편이 까닭 모르게 자살하자 유미코는 죄책감에 시달린다. 유미코의 아픔을 달래 주는 건 재혼한 다미오(나이토 다카시)의 가족이다. <어느 가족>²⁰¹⁸의 유사 가족은 핏줄이 아닌 이익으로 뭉친 '범죄 집단'이나 혈연 못지않은 끈끈함을 지니고 있다. 가족은 재앙인가, 축복인가. 가족은 핏줄로만 규정할 수 있는 건가, 그렇지 않은 건가. 고레에다 감독은 질문을 던지며 가족의 정의와 의미를 관객과 함께 찾아 왔다.



영화 <걸어도 걸어도>

그렇게 '가족'은 이어진다

<걸어도 걸어도>는 고레에다 감독의 여느 가족 영화와 결이 다르다. 부모와 자녀 모두 성인인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다. 딸 지나미도, 차남 료타도 각자의 삶이 있고 가치관이 있다. 하지만 교헤이와 도시코는 여전히 아들과 딸을 통제하려 한다. 특히 교헤이는 전통적 가부장제 사고에 젖어 있고 의사라는 선민의식에 취해 있다. “내가 일해 지은 집을 왜 ‘할머니 집’이라고 하느냐”며 지나미를 나무라는 모습이나 “저런 하찮은 놈(준페이)이 구해 준 요시오) 때문에 하필 우리 애가”라고 분노를 터트리는 대목에서 그의 성정을 짐작할 수 있다. 도시코도 봉건적이다. 료타가 ‘애 딸린’ 유카리와 헤어지기를 노골적으로 바란다.

교헤이와 도시코는 유별난 부모가 아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지나친 기대와 바

Still Walking

람을 갖기 마련이니까. 교헤이는 응원하던 프로스포츠 팀을 야구(베이스타즈)에서 축구(마리노스)로 바꿀지언정 료타에 대한 생각은 변함없다. 그렇다고 다 큰 자녀가 부모 마음대로 살 리는 만무하다. 변화한 세상의 바뀐 가치관에 발맞춰 살아간다. 부모와 자식의 생각이 엇갈리니, 말은 안 통하고 함께한 자리가 불편할 수밖에. 료타가 “부모님 댁 방문은 1년에 한 번이면 족하다”는 결론에 이른 이유다.

부모 자식 사이만 그럴까, 교헤이와 도시코는 수십 년 살고도 소통을 못 한다. 도시코는 아내를 줄곧 없는 사람 대하듯 하는 교헤이에게 비밀이 담긴 노래 ‘블루 라이트 요코하마’를 들려주며 의사 남편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일깨워 준다.

료타도 안다, 부모에게 잘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도시코가 기억해 내지 못해 물었던 스모 선수 이름을 뒤늦게 떠올린 후 말한다. “늘 이렇다니까. 한발씩 늦어.” 자식은 부모 마음을 늘 조금 늦게 깨닫거나 부모에게 소홀했음을 뒤늦게 반성한다. 그렇다고 료타는 쉬 변하지 않는다. “아들 차 타고 쇼핑 한번 해 보고 싶다”는 도시코의 소박한 소원 하나 들어주지 못한다. 부모에게 씩씩한 지나미 부부도 료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들 웃음 뒤에는 금전적 계산이 숨겨져 있다.

가족은 늘 곁에 있는 존재라 착각한다. 뒷전 취급하거나 소통을 외면하다가 잃고서 후회를 한다. 사람들은 알면서도 그렇게 산다. 삶이라는 길을 아무리 ‘걸어도 걸어도’ 말이다. 료타는 노년이 되면 자신의 아버지와 닮은꼴이 될 것이다. 그가 아내의 아들 아츠시를 차에 태우고 한 핏줄처럼 키우며 전통 가족과 다른 현대적 가족을 꾸려 간다고 해도 말이다. 아츠시라고 친구 같은 아버지 ‘료짱’ 생각대로 살아갈까. 가족은 서로 무심하게 대하고 상처 준 후 후회하다 뒤늦게 그리워하는 숙명을 지녔다고, 그렇게 가족은 이어진다고 고레에다 감독은 말하고 싶었는지 모른다.



영화 <걸어도 걸어도>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걸어도 걸어도>는 5월 19일(월) 성남미디어센터의 <시네클럽 영화 인문학> 삶과 죽음 그리고 가족>으로 만날 수 있다. 문의: 성남미디어센터 031-714-8370

‘텍스트힙’ 다음 ‘라이팅힙’이 온다

손끝에서 시작되는 한 줄의 ‘힐링’

글 박윤예 매일경제 문화부 기자

뉴욕 특파원 및 금융부, 부동산부, 증권부 등을 거쳐 현재 문화스포츠포츠부에서 출판·문학·공연 분야를 취재하고 있다. 매주 수많은 책과 공연 중에서 소개할 작품을 선정해 쉽고 재밌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이른 아침에 일어나 자기계발의 시간을 갖는 ‘미러클 모닝’이 유행이지만, 정작 아침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막막하다. 최근에는 사각사각 종이에 연필로 글자를 쓰며 아침을 시작하는 필사가 좋은 취미로 떠올랐다. 종이에 좋은 구절을 하나씩 따라 써 보면 문장력과 어휘력뿐 아니라 마음의 근력까지 키울 수 있게 된다. 혼란스러운 세상에 필사로 정신을 가다듬는 사람들이 늘면서 관련 서들이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고 있다. 온종일 스마트폰을 끼고 사는 디지털 피로 속에서 아날로그적 감성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필사 유행은 현재진행형

교보문고에 따르면 필사 관련 출간 종수가 작년부터 증가 추세다. 2022년 61권, 2023년 57권에서 작년 한 해 동안 82권으로 전년 대비 43.9%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이 같은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30세대가 필사 유행을 이끌고 있다. 연령별로 올해 필사 관련 책을 구입한 비중을 보면 20·30대가 52.1%를 차지했다. 20대 비중이 확연하게 늘어 작년 8.8%에서 올해 21.3%로 증가했다. 30대 비중은 작년 28.6%에서 올해 30.8%로 소폭 증가했다.

필사 열풍 이유? 문장력·어휘력 높이기 위해

젊은 세대에 필사 열풍이 부는 이유는 우선 훌륭한 문장을 베끼면 글쓰기 연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 시대에도 여전히 높은 문장력과 어휘력





하루 한 장 나의 어휘력을 위한 필사 노트 © 위즈덤하우스, 다음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필사책 © 책폴

이 요구된다. 베스트셀러인 필사 책 제목만 봐도 이 같은 수요가 읽힌다. 『더 좋은 문장을 쓰고 싶은 당신을 위한 필사책』 『하루 한 장 나의 어휘력을 위한 필사 노트』 등이 있다.

이 책들은 왼쪽 장에 박완서, 김애란부터 헤르만 헤세, 알랭 드 보통까지 국내외 문학인들의 다양한 글을 싣고, 오른쪽 장은 빈 공간으로 편집된다. 필사할 때 책이 잘 펼쳐지도록 사철 제본되거나 필기감 좋은 모조지로 구성된다.

때로는 심리적 위안 얻기도

아날로그적 행위인 필사를 통해 디지털 시대에 위안을 얻으려는 심리적 요인도 작용한다. 조용히 한 글자씩 쓰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단단해진다. 필사 노트를 따로 장만해 여기저기서 내 마음에 와 닿는 문장들을 수집하는 경우, 시간이 지난 뒤 일기장처럼 당시 나의 감정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교보문고 관계자는 “2030세대, 특히 20대가 불안을 해소하고 마음의 안정감을 찾기 위해 필사를 한다”며 “손 글씨로 문장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생각을 정리하고 심리적 안정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30세대는 정성스럽게 필사한 노트를 찍은 사진들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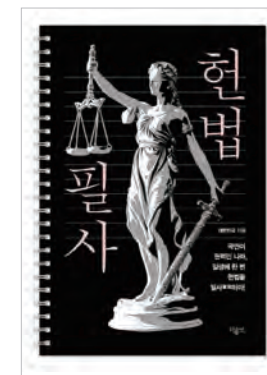
다. 해시태그 ‘필사스타그램’은 이미 12만 건을 넘어섰다. 자신이 필사한 문장, 각자만의 필사 방법까지 활발하게 공유하고 있다. 손 글씨와 필사를 합한 문화로 즐기는 ‘라이팅힙(writinghip)’ 현상이다.

무엇을 필사하느냐도 중요한 자기표현의 수단이 된다. 소설, 시, 수필부터 영어 원서까지, 필사하는 책의 종류는 자신의 취향과 관심사를 드러내는 존재가 된다. 이른바 ‘텍스트힙’이라 불리는 이 현상은 책을 자신의 개성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뜻한다.

필사책도 취향 따라

공급도 이에 발맞춰 다양한 분야에서 필사 책이 나오고 있다. 단순히 문학 작품의 필사를 넘어서 최근에는 헌법, 가사, 힐링 문장 필사집까지 출간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정세와 맞물린 『헌법 필사』가 품귀 현상을 빚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헌법 전체를 조문 순서대로 제시하고 따라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구성이다. 『다음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필사책』은 민주주의·정치·인권·시민의식·주체적 삶의 가치를 다룬 글귀와 명언을 담고 있다. 필사하면서 민주주의의 의미를 천천히 곱씹을 수 있다.

좋아하는 가수의 가사 필사집도 인기다. 한 편의 시 같은 노랫말을 직접 따라 쓰며 그 의미를 되새긴다. 『아이유 가사 필사집』에는 아이유의 노래 63곡, 『DAY6 가사 필사집』에는 DAY6의 노래 97곡이 수록돼 있다. 책 속 QR코드를 통해 노래를 들으며 필사할 수 있다. 『김광석 노래 필사하기』와 『AKMU(악뮤)



헌법 필사 © 더휴먼



한강 스페셜 에디션 © 문학동네

가사 필사집』『태연 가사 필사집』도 출간됐다.

독자의 마음을 다독였던 책을 필사 노트 버전으로 재출간한 경우도 있다. 법륜 스님의 문장을 모은 『지금 이대로 좋다 필사 노트』와 심리상담사인 고은지 저자가 쓴 『오늘도 잘 살았네』 속 문장들을 직접 적어 보는 필사 에디션이 잘 팔리고 있다. 이 책들은 ‘필사는 손으로 하는 명상’이라며 긍정 확언을 통한 정신력 증진을 강조한다.

필사 열풍에 바빠진 출판사, 필기구도 인기 만점

독자들의 수요에 맞춰 필사를 활용한 출판사의 마케팅도 늘어나고 있다. 문학동네는 ‘한강 스페셜 에디션’을 출간하면서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 『흰』 『검은 사슴』 작품과 함께 필사 노트를 추가해 판매 중이다. 독자들은 필사 인증샷을 올리는 등 반응이 좋은 편이다.

특히 에세이의 경우 독자들이 필사할 수 있게끔 ‘에세이 겸 필사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재은 아나운서의 에세이 『오늘 가장 빛나는 너에게』는 책 안에 메모나 필사를 할 수 있는 여백을 마련했다. 황가람 가수의 에세이 『나는 반딧불』은 ‘필사를 부르는 에세이’라는 부제를 달고 좋은 문장을 담았다.

필사를 위한 필기구 판매 역시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29CM는 올해 들어(1·2월 기준) 문구·사무용품 거래액이 전년 대비 75% 증가했다고 밝혔다. 카테고리별로 보면 고급 만년필, 볼펜, 연필 등 필기구는 2.4배 늘었고 다이어리·플래너는 64%, 노트류는 43% 이상 거래액이 증가했다.

특히 고급 문구용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외 고가의 문구 아이템을 소개하는 브랜드 ‘포인트오브뷰’는 거래액이 전년 대비 7.6배 넘게 증가했다. 해외 유명 연필을 선보이는 브랜드 ‘흑심’과 디자인 문구 브랜드 ‘오이뮤’의 거래액도 2배 이상 증가했다.

29CM 관계자는 “텍스트랩 열풍에 이어 필사하거나 일기를 쓰는 등 손 글씨로 기록하는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문구 수집가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쓰기 플랫폼에도 관심

남의 문장을 따라 쓰다 보면 나만의 문장을 쓰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이에 따라 네이버 블로그와 카카오 브런치스토리 같은 글쓰기 플랫폼이 다시 주목



필사 열풍을 따라 만년필과 볼펜, 연필 등 필기구 판매 역시 증가하고 있다

받고 있다.

네이버 블로그에 따르면 2023년 126만 개의 블로그가 신규로 개설됐는데 작년에는 214만 개로 전년 대비 약 70% 증가했다. 신인 작가의 등용문으로 불리는 카카오의 브런치스토리는 별도의 작가 승인 제도를 통과한 작가들만 글을 작성할 수 있는 글쓰기 플랫폼이다. 작년 10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10월 2030세대의 브런치 이용자는 전월 대비 11.3%나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쇼트폼 영상에 피로감을 느낀 MZ세대들이 긴 호흡의 텍스트 콘텐츠에 몰입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 브런치 같은 글쓰기 기반 플랫폼의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글쓰기 관련 책도 부상하고 있다. 미국 기호학회 회장을 지낸 나오미 배런 아메리칸대 언어학 명예교수는 저서 『쓰기의 미래』에서 “손으로 글을 쓴다는 것은 타이핑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걸리는 지루한 일”이라면서 “손의 움직임과 생각 사이에서 형성되는 강한 유대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페이지 전체가 손 글씨로 채워졌을 때의 만족감은 산을 올랐을 때와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배런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쓰기는 인간의 본능과도 같다”고 말하고 있는 만큼, 필사 유행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shutterstock

동독 디자인 유산을 찾아서

베를린에서 만나는 동독 디자인

글 김상규 서울과학기술대 디자인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국민대 대학원 공업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퍼시스 가구연구소에서 의자를 디자인했다. 의자를 비롯한 사물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서 큐레이팅과 아카이브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저서로는 『의자의 재발견』 『디자인과 도덕』 등이 있으며 대표적인 의자 디자인으로는 파트라에서 생산 중인 'STING' 'SKIN' 'CITY'가 있다.

디자인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이야기를 종종 접하게 된다. '제3세계를 위한 디자인' '약자를 위한 디자인'은 익숙해졌고 최근에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모두를 위한 디자인' '포용적 디자인' 따위의 온갖 도덕적인 수식어가 붙은 디자인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판매와 이윤을 위한 디자인, 성공을 위한 디자인이 주를 이룬다.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누구라도 이 점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으로 디자인의 사회적 역할이 가장 우선시되는 사회가 '있었다'. 바로 동독DDR,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이 그러했다. 지구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곳의 이름이니 과거형을 쓸 수밖에 없다. 체제가 다른 나라에 대한 선입견과 독일 디자인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기능에 충실하고 엄격한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어떻게 그리 단정할 수 있느냐고? 동독 시절에 탄생한 디자인의 일부가 21세기 베를린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기 때문이다. 베를린을 방문해 본 사람이거나 아직 가 보지 않았더라도 이런저런 매체에서 베를린의 이미지를 보았다면 놀랍게도 당신은 이미 동독의 디자인을 알고 있다.



베를린 시내의 두 가지 보행자 신호. 좌측은 동독에서, 우측은 서독에서 사용해 온 것이다

모자를 쓴 남자

한 도시를 상징하는 기념품은 대체로 기념비적인 건축물이나 전통적인 복장 정도다. 그런데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교통 신호등이라니. 베를린 시내의 기념품 판매장에는 암펠만(Ampelmann)이 빠지지 않고 심지어 암펠만 기념품만 파는 가게들도 제법 있다. 모자를 쓴 통통한 남자가 활기차



©shutterstock

게 걷는 모습은 마네킹처럼 딱딱한 자세를 갖춘 다른 도시들의 신호등과는 확실히 달라 보인다. 『베를린이 역사를 기억하는 법』에서 저자 장남주는 암펠만의 탄생과 경과를 잘 설명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1961년 동독의 교통 심리학자 카를 페글라우Karl Peglau가 보행자의 주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 이 캐릭터를 개발했고 원래 디자인은 오른쪽 방향으로 걷는 모습에다 모자를 쓰지도 않았다고 한다. 동독에서는 모자가 자본주의를 상징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독의 호네커 서기장이 모자를 쓴 모습이 텔레비전에 비친 뒤에 인식이 바뀌었다고 한다. 이윽고 동독의 이념 방향에 맞추어 왼쪽으로 걷는 모습으로 방향을 틀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로 자리 잡았다.

암펠만은 1970년부터 공식적인 보행자 신호등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이후에는 동독 어느 곳에서든 볼 수 있는 친근한 신호등이 되었다. 그런데 통일이 되고 난 뒤에는 서독의 보행 신호등으로 교체되기 시작했다. 한 도시의 보행 신호 체계가 통일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았으나, 시민들의 향의가 빚발친 결과 1997년에는 교통법규에서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받았다.

서독 출신 디자이너 헤크하우젠Markus Heckhausen은 학창 시절 동독을 방문하여 암펠만을 인상 깊게 보았고 폐기처분 직전의 암펠만 신호등을 모아서 벽걸이 전등을 만들기 시작했다. ‘암펠만 유한회사’를 설립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기도 했으니 오늘날 우리가 암펠만을 친근하게 만날 수 있게 된 데에는 그의 노력도 한몫했으리라.

동쪽만 달리는 노면 전차

독일이 다시 통일된 지 30년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동베를린과 서베를린 지역을 구분할 수 있

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쉬운 것은 트램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내 주변에 트램이 다니고 있다면 옛 동베를린 지역이 확실하다. 베를린에서는 1865년부터 트램이 운행되었으니 전 세계 어느 도시보다 노면 전차가 먼저 달리기 시작했다. 원래는 베를린 전역에 트램이 존재했으나 동서독으로 나뉜 뒤부터 서베를린 지역은 철로를 건너 내어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했다. 옛 동베를린 지역은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트램 노선을 유지해 온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베를린 동쪽에서 볼 수 있는 구형 트램들 © 김상규

영화 <타인의 삶>의 독일 포스터

관광객들이 가장 붐비는 중심부인 미테Mitte에도 트램이 지나지만 신형 트램이라서 개인적으로는 별다른 느낌이 없다. 동쪽으로 깊이 더 들어가야 오래된 트램을 만날 수 있다. 각진 모양에 계단과 접이식 출입문은 기계식 미학을 잘 보여 준다. 그 트램이 다니는 곳에 서 있으면 <타인의 삶>Das Leben der Anderen>2007을 비롯하여 동베를린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 장면이 하나둘 떠오른다. 장벽을 사이에 두고 한 도시에 서로 다른 사상과 체계 그리고 그에 따른 삶의 양식들이 존재했던 시기의 이미지들. 통독 후, 동독 사회 체계의 흔적임에도 버스 중심 체계로 교체되지 않은 것은 어쩌면 그 이미지를 간직한 사람들에게 대한 예의가 아니었을까? 아니면 신경망처럼 구석구석 뻗어 있는 노선을 걸어 내기가 어려웠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알렉산더 광장

트램의 서쪽 끝에는 알렉산더 광장Alexanderplatz이 있다. 필자는 한동안 베를린에 머물던 때에 알렉산더 광장을 자주 들렀다. 도심에서 대중교통을 환승하는 곳이고 쇼핑하거나 장을 보러 해도 그곳을 거쳐야 했기 때문이다. 알렉산더 광장을 지날 때면 늘 ‘세계시계탑’이 눈에 들어왔다. 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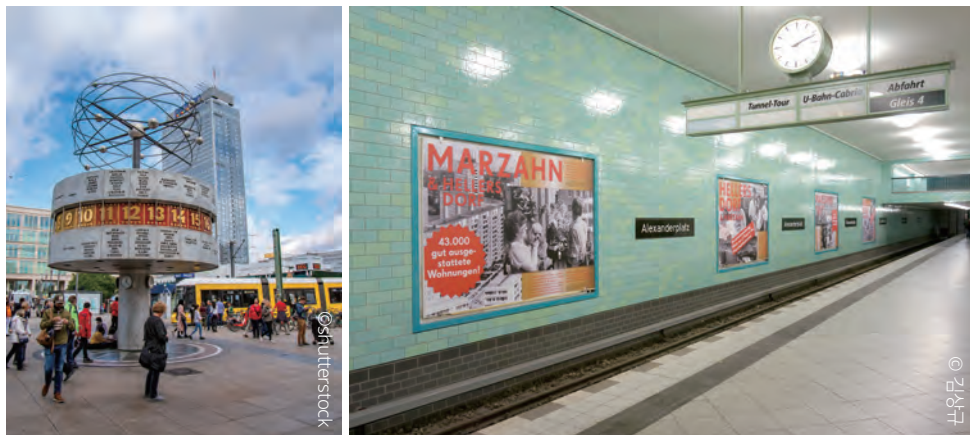
일어로 'Urania-Weltzeituhr'라고 불리는 이 시계탑은 에리히 존Erich John이라는 사람이 디자인했다고 한다. 그는 베를린 바이젠지 예술학교에서 교육받은 동독의 디자이너였다. 동독 정부가 1950년에 네덜란드의 건축가이자 디자이너인 마트 스타Mart Stam을 그 학교의 교장으로 초빙한 사실 때문에 들어 본 바 있는 학교다.

처음에는 여러 나라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을 염두에 두어 근래에 설치한 조형물인 줄 알고 무심히 지나쳤으나 동독의 유산이라는 점을 알고 나서는 그 디자인이 달리 보였다. 트램에서 느꼈던 미적 감각과도 닮은 데가 있었다.

알렉산더플라츠 전철역U-bahn에서도 또 다른 유산을 발견했다. 이 전철역 플랫폼에서 <정치 포스터: 지하 예술 60년 Posters made political - 60 years Art in the Underground>이라는 제목의 전시가 열렸는데 무려 1958년부터 매년 열린 포스터 전시라고 한다. 당시에는 그 역이 동독 지역이었으니 엄격한 통제 속에서도 그런 새로운 사회에 대한 상상을 다룬 진보적인 전시가 열렸다는 사실이 의아했다. 아무튼 통독 이후에도 연례적인 이 전시가 지속되었는데, 2018년에 60주년을 기념하면서 기획 공모 당선 작가 2명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었다.

관계자의 얘기로는, 통독 후에 주최 기관이 사라지자 1991년에 '광고보다 예술을Kunst statt Werbung'이라는 그룹이 결성되어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역 플랫폼과 벽면에 대형 포스터를 부착하는데 지하철역 대부분이 그렇듯이 그 공간은 광고판 역할을 한다. 지하철 광고 권한을 가진 광고회사가 그냥 제공할 리 없으니 지금은 광고료를 지불하고 짧은 기간 전시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작은 행사지만 광고비를 지불해서라도 체제가 바뀐 오늘까지 행사를 이어 온 점 그리고 지하철



알렉산더 광장의 가운데에 설치된 세계시계탑, 알렉산더플라츠 전철역 벽면에 설치된 <정치 포스터: 지하 예술 60년>전의 작품들

플랫폼이 예술가들의 플랫폼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은 것 같다. 그보다도 그런 전시가 동독 시절에 시작되어 아직까지 남은 유산이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해 보인다.

동독의 세간살이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두 세계가 동등하게 하나의 독일로 다시 통합한다기보다는 동독의 흔적이 점차 사라지는 것 같다. 베를린 역사박물관, 동독박물관DDR Museum에 보존된다는 것이 그 증거인데, 전시물로 남은 것은 과거의 기억을 명확히 해 주지만 박제화되어 더 이상 생명력을 갖지는 못한다.

그나마 사물박물관Museum der Dinge에서 동독과 서독의 일상 사물을 비교해서 디스플레이한 것은 흥미롭다. 그 박물관의 한구석에는 서독과 동독의 일상용품을 비교하는 작은 수납장이 있는데 결국 눈이 가는 것은 동독에서 사용되었다는 알록달록한 플라스틱 제품이었다. 이방인의 눈에 그것이 더 잘 보일 뿐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서구화된 상품의 소비 생활에 익숙한 탓에 낯선 물건에 호기심이 가는 것일 수도 있겠다.



동독박물관에 재현 설치된 동독 주택 실내와 사물박물관에 전시된 동독 일상용품들 © 김상규

박물관 밖 거리에서 동독의 사물을 발견할 기회가 없진 않다.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군복과 방독면, 휘장을 파는 노점이 간혹 보이는데 이 풍경을 통해서 동독이 하나의 기억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보다는 오히려 주말마다 베를린 시내 곳곳에서 열리는 벼룩시장Flohmarkt이 좀 더 생생한 모습을 보여 준다. 독일인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오래된 물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동독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던 세간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특히 동역Ostbahnhof 뒷마당에서 열리는 벼룩시장은 그야말로 동쪽 분위기가 물씬 난다. 나무 좌판과 골판지 상자에서 두서없이 뒤섞여

먼지를 뒤집어쓴 인쇄물과 소품들을 종종 발견하게 된다.

과거에 동과 서로 나뉘어 있던 두 세계의 오래된 물건들은 마치 유물을 발굴하는 듯한 묘한 느낌을 준다. 서로 다른 스타일과 디자인이 제각기 낡은 모습으로 뒤섞여 있는 가운데 ‘메이드 인 디디알’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다. 뮤지엄에서 본 것과 똑같은 물건들을 벼룩시장에서 보는 것은 전시품으로 접하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을 준다. 누군가가 디자인했을 것이고 또 누군가 사용하다가 어찌어찌 흘러서 벼룩시장 좌판에 올라온 것 아닌가.



베를린 동역의 벼룩시장 전경 © 김상규

사회적 디자인을 지향한 디자이너들

그러면 정작 그 사물을 디자인한 이들은 누구일까? 그들은 어떤 태도를 갖고 디자인했을까? 어느 자료에서나 동독의 디자이너들이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디자인, 즉 이윤이 아니라 철저히 사용자와 그 사회를 위한 디자인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심에는 실용적 기능성, 사용성, 오랜 수명, 생산성, 자원의 경제적 사용 등이 있다.

이것들은 오늘날에도 무척이나 중요한 덕목들이 아닌가. 어떻게 이런 측면들이 1950년대와 60년대 동독의 디자이너들 사이에서는 당연시될 수 있었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한국 사회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최근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기후위기로 생태 전환을 고민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격세지감이 든다. 앞에서 언급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 동독의 디자이너들은 오래전부터 생태적인 접근을 하고 있었던 셈이다.



사물박물관에 전시된 동독 디자인 관련 홍보물과 디자인 제품들 © 김상규

구체적인 사례로는 사용감의 미학을 들 수 있다. 어떤 사물이든 시간이 지나면 낡기 마련이다. 낡음은 그 사물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렇지만 오래 사용한 흔적을 사물의 권위로 여기던 때가 있었다. 가구는 물론이고 필름식 카메라와 오디오만 보더라도 반들거리는 표면이 중후한 느낌을 주어 후대에 물려주었고 지금도 고가로 판매되곤 한다. 언제부턴가 새로운 디자인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상품 판매를 촉진하려는 전략 중 하나이기도 했다. 기업들은 이른바 ‘계획적 구식화(planned obsolescence)’, 즉 제품의 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리는 방식을 취해 왔고 자본주의 국가의 디자이너들은 그 방식을 성실히 따라왔다.

반면에, 동독 디자이너들은 일찌감치 이 ‘계획적 구식화’를 거부했다. 대신에 ‘사용감(patina of use)’을 하나의 미학으로 간주하여 오래 사용하면서 흠이 생기는 ‘낡음’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 매년 새로운 모델이 등장하는 문화에 익숙한 소비자들의 눈에는 이런 노력이 구태의연하고 세련되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생태적인 관점으로 보면 훌륭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미학적인 측면뿐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서두에 언급한 암펠만의 경우도 무척 효과적이었다고 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동독과 서독의 신호등을 비교 평가해 보니 서독 신호등에 비해 암펠만이 더 간결하고 신호 인식 면에서도 더 효과적이라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그 덕분인지 암펠만은 실제로 베를린 보행 신호등의 6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전반적으로는 동독의 디자인보다는 동시대의 서독과 서구에서 등장한 디자인이 더 완성도가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앞서 살펴본 베를린의 동독 디자인 유산들도 그리 세련되어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오늘날 베를린 시민뿐 아니라 이방인의 눈길을 끌 만큼 독특한 매력이 있다. 특히나 동독 시절의 기억을 가지고 사는 이들에게는, 당시 정치적 상황이야 어떠했던 자신의 일상적인 경험을 담고 있으니 각별할 것 같다. 아무튼 21세기에도 베를린 시내에 당당히 존재하고 있으니 그 사실만으로도 암펠만과 세계시계탑, 트램을 비롯한 동독 디자인의 유산이 지닌 가치가 증명된 것이 아니겠는가.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

SEONG-JIN CHO PIANO RECITAL

2025년 6월 15일(일) 오후 3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리스트 에스테 별장의 분수 ●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5번 D장조, Op. 28 '전원' ● 버르토크 야외에서 ● 브람스 피아노 소나타 3번 F단조, Op. 5
티켓 R 120,000 / S 100,000 / A 80,000 / 합창석 60,000 ● 예매 1544-8117 ● 문의 031-783-8000



S EONGNAM+

성남의 얼굴
국악 창작자 남경우

성남아트센터 개관 20주년
성남아트센터, 20년의 기록

성남아트센터 탐구생활
성남미디어센터 미디어도서관

성남아트센터 가이드
캘린더+맵

5월의 큐레이션
프로그램 가이드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안내

SNART News



국악 창작자 남경우
과거와
현재를
—
이어 가는 법

©유준범

민요는 오랜 세월 동안 입에서 입으로, 사람과 사람을 이어 내려온 민중의 노래다. 우리네 삶 속에서 웃음과 눈물, 기쁨과 회한을 담아내며 함께한 민요의 존재는 그저 노래가 아닌 민족의 삶과 역사 자체였다. 매 순간 변화로 가득한 디지털과 인공지능의 시대에 접어든 오늘날, 조금씩 희미해지는 우리 소리를 다시금 일깨우는 젊은 예술인들의 존재는 그래서 더욱 귀하다. 2024년, 2025년 성남문화재단의 청년예술활동 지원사업 공모 선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국악의 미래를 모색 중인 청년 예술인 남경우도 그중 한 명이다. 전통과 현대의 공존을 꿈꾸며 동시대와 공감할 수 있는 우리 민요 알리기에 한창인 남경우의 이야기를 전한다.

글 남소연 성남문화재단 소통전략부 과장

—— 먼저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음악인 국악을 토대로 공연 연출과 소리 실연, 작곡 등 다방면으로 활동 중인 국악 창작자 남경우입니다.

—— 어떤 계기로 처음 국악을 공부하게 되셨나요?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민요가 뭔지도 잘 모르던 시절인데, 음악 교과서 속 창작 민요 ‘고사리 꺾자’가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집에서 내내 그 노래만 부르고 있으니, 어머니께서 민요 학원에 다녀 보겠냐 권하셔서 시작하게 됐죠. 이후로 우리 음악을 더 깊게 공부하기 위해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와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를 거쳐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 전수자를 취득, 작년에 이수 심사를 통과하고 전승 활동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 경기민요만의 매력을 좀 더 자세히 알려 주신다면요?

경기민요는 민요 중에서도 가장 흥겹고 테크니컬하고, 대중적인 매력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경기민요 속에 담긴 ‘즐거움’은 단순히 ‘행복하다’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난날을 잘 견뎌 내고 오늘을 되돌아보는 속사정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평소 느끼는 즐거움이란 결국 크고 작은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야 더 보람차고 즐겁게 다가오거든요. 경기민요는 그런 보편적인 정서를 오롯이 담아낸 노래입니다. 예를 들어 입을 그리는 슬픈 가사에 경기민요 선율이 없으면 고통스러운 느낌이 잘 드러나요. 무작정 슬픈 것이 아니라 곳곳한 ‘절개’의 맛이 있달까요? 그렇게 표현하는 멋에 감탄이 나옵니다. 공감할 수 있는 가사,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점도 특징이죠.

MZ세대가 지켜 가는 ‘오늘의 국악’

—— 2024년 성남문화재단의 ‘청년예술인 창작활동 공모지원’에 선정되어, 전통 민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무대화하는 ‘고명소리 프로젝트’를 진행하셨어요. 어떤 작업이었나요?

‘고명소리’는 ‘전통 소리에 여러 고명을 얹어서 오늘의 노래로 만들어 보자’는 뜻입니다. 요리에 서 고명의 존재는 맛을 더할 뿐만 아니라 음식을 너무나 예쁘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 바람과 포부를 담은 말입니다. 제가 정식으로 준비한 첫 퍼포먼스 음악이기도 했고, 좋은 연주자들과 무대를 만든 값진 경험이었어요. 크로스오버 민요 7곡을 제작해 ‘성남아트rium 대극장 최초 국악밴드 공연’이라는 타이틀로 연주를 펼쳤는데, 성남시민뿐만 아니라 지역과 문화예술 분야의 관계자들, 타 지역에서도 와 주셔서 감사했죠. 이후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의 콘텐츠 제작 지원으로 <고명소리프로젝트 一, 경기소리>라는 EP를 발매하는 성과로도 이어졌습니다. 돌아보면 과정이 즐거워서 더욱 행복했던 프로젝트였어요.

——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청년예술인 창작활동 공모지원에 선정되었지요. 올해에는 서도민요를 중심으로 한 공연 사전 제작 과정을 기록·공유하는 프로젝트라 들었는데요,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 그리고 전통 소리 중 서도민요를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올해에는 청년 예술인들의 음악 제작 과정 현장을 생생한 영상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그 결과물을 함께 감상하며 촬영 과정과 우리 민요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들 예정입니다. 제가



2024년 성남아트리움에서 진행된 <고명소리 프로젝트> 공연 현장



계획한 ‘경기소리-서도소리-동부소리’ 중 두 번째 프로젝트의 사전 제작 과정이기도 한데요, 길게는 우리 팔도민요를 쭉 훑어 가며 고유한 매력을 보여 주려 해요. 우리 민요가 한창 성행하던 구한말에는 누가 어떤 지방 노래를 잘 부른다, 어디 출신이다 회자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모든 소리꾼의 소통이 왕성했다고 해요. 물론 저 역시 다른 지역의 민요도 좋아하고, 실제로 많은 경기민요 소리꾼들이 경상도·강원도의 동부민요, 제주민요 등 여러 지역 민요들을 함께 가창합니다. 그래서 저도 민요라는 이름 아래 그저 또 하나의 노래로 보여 드리고 싶어요. 더해서 청년이라는 이름도 함께요.

—— 프로젝트 선정 2년 차라는 점은 작업의 연속성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남문화재단의 지원사업 선정이 예술 활동에 더해 주는 실질적인 순기능은 어느 정도일까요?

재단에서 프로젝트 지원뿐만 아니라 과정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 주셔서 큰 도움이 돼요. 제 프로젝트 계획서를 심사위원들께서 검토해 주시고 함께 들여다보는 과정이 예술세계를 더 깊이, 넓게 키워 가는 힘이 됩니다. 작업하며 스스로를 자꾸 의심하고 때론 두려움을 이겨 내면서 도전하는 과정을 겪다 보면 지칠 때가 많은데, 재단에서 금전적·정신적 지원으로 이 과정을 독려해 줄 때면 누군가 제게 ‘잘하고 있다’며 따뜻하게 어깨를 두드려 주는 느낌을 받곤 해요.

—— 재단 지원 외에 비슷한 청년 예술인들과의 공감이나 연대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역의 청년 예술인들과도 교류가 있으신가요? 창작 작업을 진행하시면서 서로간의 네트워크나 협업의 필요성을 느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남문화재단에서 연결된 인연으로 지역의 몇몇 작가님과 교류를 이어 가고 있어요. 장르가 다르다 보니 당장 구체적인 융합 작업은 쉽지 않지만, 오히려 그런 ‘다름’의 부분에서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어 새로운 무언가가 만들어질 것 같은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동안 이 부분을 고민하던 차에, 올해 ‘성남예술인 교류·협력 사업’에 선정되어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청년예술인들이 성남 연습실에 모여 예술세계 교류talk 및 즉흥 연주를 해 볼 예정인데요, 누구나 볼 수 있는 오픈형 창작 작업으로 진행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세월 속에서도 변치 않는 예술을 꿈꾸며

—— 국악밴드 활동 등, 현대적 요소와 융합한 전통 소리의 재해석 작업에 꾸준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유튜브에서 영상들을 찾아보니, ‘태평가’처럼 익숙한 경기민요를 경쾌한 밴드 음악으로 재해석한 버전이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점에 포인트를 두고 새롭게 창작, 또 편곡하시는지요?



<고명소리 프로젝트> 팀과 함께. (왼쪽부터) 박새한(피리), 김기석(베이스), 남경우(연출 및 보컬), 정유경(가야금), 이강산(밴드마스터, 일렉기타), 함승영(드럼)

재미있게 즐길 수 있었으면 해요. 우리 음악은 다채로운 희로애락의 감정을 담고 있지만, 다른 사람과 공감하지 못하면 의미가 퇴색된다고 봐요. 전통의 고전적인 가치를 지켜 가야 할 때도 있지만 동시대적으로 바라보면 그런 부분이 현대와 부딪히는 순간이 있거든요. 특히 ‘민요’는 입에서 입으로 오래도록 전해진 노래이기도 하니, 오늘의 정서에 잘 융합돼 사랑받으며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커요. 앞으로 그 부분에 계속 집중할 계획인데, 함께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다양한 악기, 연주자들과의 협업 중에서도 드럼과 일렉트릭 기타 등의 밴드 콘셉트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 스승님하신 이희문 선생님께서 밴드를 하시다 보니 관심이 많이 갔어요. 작년부터 몇몇 공연에는 일일 서브 보컬로 참여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실용음악가들과도 인연이 닿았고, 젊은 세대에게도 익숙한 음악이라 “이참에 프로젝트 밴드 한번 해 보자” 해서 도전하게 됐죠. 실제로 제가 속한 성남 청년협의회 친구들이 재밌게 공연을 즐겨 줘서,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 프로그램의 작곡과 편곡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단독 작업인지, 혹은 협업인지 궁금한데요.

매번 다른데요, <고명소리> 첫 프로젝트는 기타리스트 이강산님과 전곡을 함께 작업했습니다. 메인 콘티를 짰 뒤 서로 공부하며 아이디어를 많이 나눴어요. 창작은 항상 쉽지 않아서, 반짝 하고 ‘영감’이 올 때까지 산에 올라가거나, 좋은 음악을 듣거나, 전시를 보러 가는 식으로 이런저런 자극을 주려고 해요. 또 의외로 좋은 작품은 서로 장난식으로 주고받다 “그거 좋은데?” 하고 만

들어지기도 하죠. 그렇게 샘플들을 만든 후 수많은 반복과 편집의 시간 속에 곡이 완성됩니다.

—— 전통 소리의 원형을 보존해야 한다는 책임감, 또 동시대의 공감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라는 두 가지 조율에 고민이 많으실 듯해요. 이를 위해 마음에 둔 철칙이 있으실까요?

고리타분한 말일 수도 있지만, ‘전통 소리를 제대로 알고 그 문화를 진심으로 대한다’는 옛말이 항상 옳은 것 같아요. 누군가와 같이 작업을 하더라도 제가 사랑하는 한국 소리와 문화가 제 의도대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요. 결국 한국에서 살아오고 전통을 배운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 노래에 스토리텔링을 부여하는 것 모두 예술가로서 제 몫이니까요. 그 정도를 잘 지켜 나가며 어떤 시도든 잘 쌓아 나가고 싶습니다.

—— 지금까지 활동하시면서 영향을 받은 분들, 혹은 롤 모델로 삼고 있는 분이 있다면요?

국악계의 큰어른이신 경기민요 보유자 이춘희 선생님, 항상 아낌없는 조언을 주시는 이희문 선생님, 언제나 도전을 응원해 주시는 가객 강권순 선생님 그리고 저의 모든 발자취를 응원해 주는 가족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 외에 다른 분야의 선생님들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일러 주고 계세요. 평소에는 마이클 잭슨이나 엘라 피츠제럴드, 미켈란젤로와 앤디 워홀처럼 한 시대를 풍미했던 아티스트들을 보고 들으며 자극을 받곤 합니다. 그들의 예술 속에 담긴 시대가 변해도 바래지 않는 아름다움과 삶의 빛깔은 제게 여전히 깊은 감동을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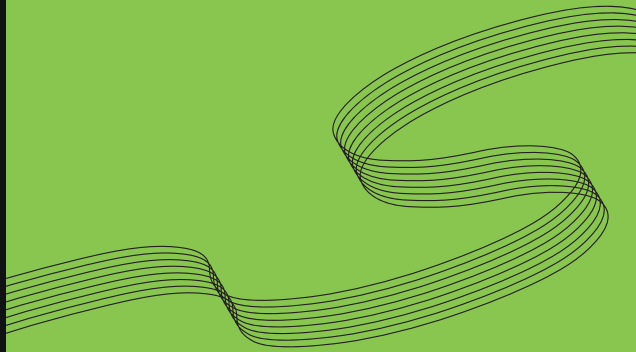
—— 계획 중이거나 도전하고 싶은 작업들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매년 진행하는 저의 전통 레퍼토리 신작 <경우소리시리즈: 문밖에 잡가(雜歌)가 있다> 공연을 계획 중인데요, 과거의 유행가였던 ‘잡가’를 중심으로 한 내용입니다. 또 컨템퍼러리 댄스와 국악 협업 작품의 음악감독을 맡아 준비하고 있어요. 성남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청년예술인 창작지원 <고명소리 프로젝트 둘 - 서도소리 PROCESS>와 청년 예술인들의 오픈형 네트워킹 이벤트 <이어-가고(脈), 이어-가다(Connect)> 두 작품으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악 창작자(Gugak Creator)로서 창의적인 활동들을 보여 드리고 싶어요. 크게는 성남아트센터나 해외 오페라하우스에서 제가 만든 작품으로 공연하는 것, 작게는 주어진 작품들을 잘 해내며 매년 새로운 무언가를 선보일 수 있는 국악 창작자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꾸준한 마음으로 오늘의 것을 한 계단씩 쌓아서 내일의 아이디어로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성남아트센터, 20년의 기록
2005-2025
찬란히 빛나던 순간들



2005년 10월 14일,
성남시민의 문화향유를 위해,
세계 속의 문화도시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
성남아트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도시 곳곳에 문화예술을 꽃피우기 위해
함께 걸어온 그간의 발자취,
알차고 풍요로웠던, 아름다운 예술의 기록들을
2025년 한 해 동안 차례대로 살펴봅니다.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성남아트센터
역대 주요
공연·전시

2008-
2011
HIGHLIGHTS

2008

- 네덜란드 댄스 시어터 2 5.17~5.18
- 힐러리 한 & 밴쿠버 심포니 오케스트라 10.11
- 장예모 연출 & 중국 국립발레단 <홍등 紅燈> 10.17~19
- 제2회 성남국제청소년관현악페스티벌 5.23~6.1
- 정명훈, 랑랑 & 라 스칼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9.9
- 장한나 & 런던 체임버 오케스트라 11.5
- 안네 소피 폰 오터의 <크리스마스 콘서트> 12.14

2009

- 톤 쿠프만 & 암스테르담 바로크 오케스트라 3.6
- 에미오 그레코 & 피터 솔텐 프로젝트 <Hell> <Beyond> 4.4~4.5, 4.10
- 제3회 성남국제무용제 4.25~5.2
- 장한나의 애플루트 클래식 I 9.10~9.12
- 뮤지컬 <남한산성> 10.9~11.4

2010

- 피아니스트 아르카디 볼로도스 리사이틀 2.27
- 로저 노링턴 & 슈투트가르트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5.6
- 장한나의 애플루트 클래식 II 8.14~8.28
- 영국현대미술전 - 존 무어 수상작가 8.6~10.14
- 이반 피셔 &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10.8
- 프랑스 리옹 국립 오페라 발레단, 마츠 에크 <지젤> 10.29~10.30

2011

- 피아니스트 폴 루이스 리사이틀 4.23
- 악극 <모란이 꽃피는 시간> 4.15~4.24
- 장한나의 애플루트 클래식 III 8.13, 8.20, 8.28
- 영국 로열 아카데미 대표작가전 7.1~9.25
- 이안 보스트리지 & 에우로파 갈란테 11.6



바로크 음악의 거장 최초 내한

톤 쿠프만 & 암스테르담 바로크 오케스트라 | 3.6 | ⇐

하이든 서거 200주년과 헨델 서거 250주년인 2009년, 이들의 음악을 당대연주로 듣는 귀한 기회가 마련되었다. 오르가니스트이자 지휘자, 음악학자인 톤 쿠프만(Ton Koopman)과 암스테르담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최초 내한 공연에서 쿠프만은 헨델 <수상음악, HWV348> 1번과 하이든 교향곡 83번 '암탉', 라모의 오페라 <다르다누스[Dardanus]> 중 모음곡을 들려주었다.

2009

2008

현대무용의 신화, 성남에서 꽃피다

네덜란드 댄스 시어터 2 | 5.17~5.18 | ⇐

실험정신과 혁신으로 뭉친, 세계 정상 무용수들이 선망하는 무용단 네덜란드 댄스 시어터^{NDT}. 이들 중 22세 이하 젊은 단원으로 구성된 'NDT 2'가 성남 땅을 밟았다. 이들은 한스 판 마넨의 <Simple Things>, 지리 킬리안의 <Sleepless>, 오하드 나하린의 <Minus 16>까지 세 편의 작품을 선보이며 젊은 무용수들의 놀라운 에너지를 보여주었다. 특히 <Minus 16>은 스윙을 추던 15명의 남성 무용수가 관객을 무대 위로 데려와 함께 춤을 추는 후반부로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세계 무용계의 현재를 보여 주다

에미오 그레코 & 피터 솔텐 프로젝트 | 4.4~4.5, 4.10 | ⇐

유럽 현대무용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안무가 에미오 그레코는 2009년 4월, 연극 연출가 피터 솔텐과 함께 단테 <신곡>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대표작 <Hell>(한국 초연)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 공동 프로젝트 <Beyond>(세계 초연)를 선보였다.



베일에 가려진 중국 발레를 만나다

중국국립발레단 <홍등> | 10.17~19 | ⇐

서양의 발레에 경극, 그림자극 등 중국의 색채를 절묘하게 녹여 낸 <홍등> 한국 초연²⁰⁰⁸은 중국국립발레단의 첫 내한이자, 세계적인 영화감독이자 연출가인 장예모의 무용극으로 화제를 모았다. 중국 정부가 주도해 만든 작품인 만큼 공연 조건 역시 까다로웠는데, 성남아트센터와 국립극장 등 국내 5개 주요 극장이 연합해 국내 초연을 성사시키며 중국과 문화 아이템 교류의 물꼬를 트게 된 역사적인 공연이다.



창작 뮤지컬의 새로운 역사

뮤지컬 <남한산성> | 10.9~11.4 | ⇐

성남아트센터는 소설가 김훈의 <남한산성>을 원작으로 한 창작 뮤지컬 <남한산성>을 통해 우리의 문화유산 알리는 창작 문화콘텐츠 제작에 나섰다. 조광화(연출), 고선웅(각본), 정승호(무대 디자인) 등 최정상 제작진과 이필모, 김수용, 그룹 슈퍼주니어의 예성 등 스타들이 함께한 화제작으로, 청나라를 피해 남한산성으로 피신한 인조와 민초들의 투쟁, 삶에 대한 강인한 의지를 현대적인 감각과 드라마틱한 무대로 풀어냈다.

처음 만나는 비르투오시티

아르카디 볼로도스 피아노 리사이틀 | 2.27 | ⇨ ⇩

강철 비르투오소 아르카디 볼로도스²⁰¹⁰, 지성파 연주자 폴 루이스²⁰¹¹, 초절기교 난곡을 가볍게 주무르는 마르크 앙드레 아물랭²⁰¹², 프랑스 피아니즘의 정수를 들려주는 장 에프랑 바부제²⁰¹³... 성남아트센터는 눈부신 음악성으로 절대적인 마니아층을 형성한 피아니스트, 세계 음악계의 별들을 초청하며 화제를 모았다. 데뷔 이후부터 '제2의 호로비츠'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던 러시아의 비르투오소 볼로도스의 내한은 바로 그 시작이었다. 폭발적인 파워와 스피드, 그 안에 살아 있는 세련된 디테일은 새로운 피아니즘을 제시하며 관객들의 기립박수를 이끌어 냈다.



2010

유럽 현대미술의 오늘을 보여 주는 기획전

영국현대미술전 - 존 무어 수상작가 | 8.6~10.14 | ⇨

2010년 성남아트센터는 기존 미술관 본관(현 갤러리808) 외에 추가로 성남큐브미술관 공간을 오픈, 서울 중심의 전 시문화를 지역 내로 유도하기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2010년 새롭게 문을 연 큐브미술관의 개관기념전은 영국 현대 미술계의 현재를 이끌어 가는 작가들을 소개한 <영국현대 회화전>이다. 50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영국 회화 상인 '존 무어 현대회화상' 수상 작가전으로 꾸며진 이 전시는 데이빗 호크니, 리처드 해밀턴, 피터 도이그, 이안 데븐포트 등 역대 수상 작가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30인의 작품을 소개했다.



파격과 충격, 이런 지젤은 없었다

프랑스 리옹 국립 오페라 발레단, 마츠 에크 <지젤> | 10.29~10.30 | ⇨ ⇩



낭만발레의 걸작 <지젤>은 성남아트센터 무대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다. '고전에 대한 공격인가, 도전적인 창조인가?'라는 카피를 내걸었던 이 공연은 스웨덴 쿨베리 발레단을 세계적인 무용단으로 성장시킨 현대무용의 이단아, 안무가 마츠 에크 Mats Ek의 작품이다. 이 버전에서 지젤은 밧줄에 묶여 통제되는 모자란 소녀로 등장한다. 알브레히트에게 버림받은 지젤은 미친 채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지젤>을 '발레 불량'의 대명사로 만들어 준 윌리엄의 춤은 하얀 환자복을 입은 정신병동 환자들이 바닥을 구르는 장면으로 표현하며 충격을 던졌다.



지휘자 장한나의 눈부신 성장

장한나의 <애플루트 클래식> II | 8.14~8.28 | ⇨ ⇩

2007년 장한나의 성공적인 지휘자 데뷔 무대를 펼친 성남아트센터는 '음악이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모토 아래 장한나와 함께 클래식 음악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프로그램 <애플루트 클래식>을 내놓았다. 매해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100여 명의 젊은 음악도들이 마에스트라 장한나와 함께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 가며 성장해 가는 과정은 그 자체로 감동을 선사했다. 2010년에는 장한나의 멘토를 자처하는 거장 로린 마젤이 어떤 대가도 없이 뮤지컬 어드바이저로 참석, 리허설 참관과 특별 지휘 등 스승의 무한 사랑을 보여 주었다.



2010



모두에게 각인될 슈베르트

폴 루이스 피아노 리사이틀 | 4.23 | ⇨

영국 출신의 폴 루이스는 젊은 신예의 데뷔 음반으로는 이례적으로 슈베르트 후기 소나타를 선택하고, 웅만한 연주자들은 그 무게감에 도전을 꺼리는 베토벤 소나타 전곡 앨범을 소화한 지성파 피아니스트다. 하이페리온 레이블에서 묵묵히 진중한 음악 세계를 선보여 온 루이스는 첫 내한 리사이틀에서도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15번, D840> <피아노 소나타 17번, D850> <3개의 소품, D946>으로 꾸민 슈베르트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해석의 지평을 열어 주었다.



비온디+보스트리지, 이 조합 못 잃어

이안 보스트리지 & 에우로파 갈란테 | 11.6 | ⇩

바이올리니스트 파비오 비온디와 에우로파 갈란테, 영국을 대표하는 지성파 테너 이안 보스트리지라는 환상의 조합! 이들은 보스트리지의 음반 <Three Baroque Tenors>(EMI) 수록곡과 더불어 에우로파 갈란테가 연주하는 코렐리, 비발디, 텔레만의 주옥같은 음악을 선사했다. 보스트리지는 헨델, 비발디, 스카를라티 등이 바로크 시대의 3 테너인 보로시니(F. Borosini), 파브리(A. Fabri), 비어드(J. Beard)를 위해 작곡한 아리아를 노래하며 낯선 음악으로도 충분한 감동을 전해 줄 수 있음을 증명했다.



성남미디어센터 미디어도서관 나만의 도서관부터 영화관까지

성남아트센터를 찾아오시는 모두에게 숨은 꿀스팟을 소개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꿀자리는 바로 다양한 미디어 교육과 커뮤니티 활동이 진행되는 성남미디어센터 2층에 마련된 휴식 공간, '작은영화관'과 '미디어도서관'입니다.

글 강준구 성남문화재단 소통전략부



성남미디어센터 2층에 언제든지 휴식할 수 있는 꿀자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작은영화관'은 무료로 영화를 시청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1층 안내 데스크에서 DVD를 신청하고 나만의 작은 감상실, 혹은 빈백 소파에 누워 감상할 수 있어요. 너무 편안해서 잠이 솔솔 온다는 것은 안 비밀!

다음 꿀자리는 '미디어도서관'인데요, 영화 이론서, 촬영 기법 등 미디어 관련 도서는 물론, 예술 도서와 소설, 만화 등을 읽으며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외부 대어는 불가능하지만 현장에선 편하게 열람 가능해요. 어린이 학습 도서들도 있으니 아이와 함께 즐겨 보는 건 어떠세요? 미디어센터 운영 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으니 많관부!



문의 성남미디어센터 031-724-8370

성남아트리움 작곡가 시리즈 모차르트 I

Mozart



지휘 Conductor
김성진 Sung Zin Kim

바이올린 Violin
임지영 Ji Young Lim

연주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Korean National
Symphony Orchestra



2025. 5. 15 THU 7:30PM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제3번, 교향곡 제 40번
성남아트리움 대극장

티켓 R석 35,000원 S석 25,000원 시야제한석 15,000원

예매 인터파크 1544-8117

문의 031-783-8000

SEONGNAM ARTS CENTER MONTHLY GUIDE

Calendar

Map

Programs

성남아트센터 가이드 | 2025년 5월

성남아트센터가 준비한 다양한 예술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새로운 감동으로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AN DER SCHÖNEN BLAUEN DONAU



5.15

린츠의 두 남자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노이오페라합창단, 지휘 홍석원
소프라노 김은희, 메조소프라노 양송미, 테너 박성규, 베이스 최웅조

모차르트 교향곡 36번 C장조 '린츠'
브루크너 '이새의 뿌리에서'
브루크너 <테 데움> C장조

성남아트센터
마티네콘서트

피아니스트 김태형이 들려주는 클래식 이야기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전11시 콘서트홀 (2025년 3월~12월, 총10회)



성남문화재단

2025.05

㉠ 오페라하우스 ㉡ 콘서트홀 ㉢ 앙상블시어터
㉣ 성남아트리움 ㉤ 큐브플라자 미디어홀
■ 성남문화재단 기획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1	2	3	4
			㉢ 하미순의 홍보가(17:00)		㉢ 뮤지컬 <한글용사 아이야: 사라진 한글을 찾아라>(11:00, 14:00, 16:30) ㉢ 싱어롱 콘서트 뮤지컬 <무지개 물고기>(11:00, 14:00, 16:30)	㉢ 뮤지컬 <한글용사 아이야: 사라진 한글을 찾아라>(11:00, 14:00, 16:30) ㉢ 싱어롱 콘서트 뮤지컬 <무지개 물고기>(11:00, 14:00, 16:30)
5	6	7	8	9	10	11
	㉢ 라크로체 클래식 가족의 달 기획공연 <Family is Power>(15:00)	㉢ 김진욱의 대금: 연(演) IV(19:30) ■ ㉠ 무료 정기상영 <클래식>(14:00)	㉢ 제1회 코리아 청춘합창 페스티벌 '행복한 시니어 합창단들의 노래'(15:00)	㉢ 가천대학교 성악과 합창 정기연주회(19:30) ㉢ 맹 진사 닥 경사났네!(16:00, 19:30)	㉢ 2025 정동원 콘서트 <동화>(17:00) ㉢ 코리아 크리스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19:30) ㉢ 정성희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 '소풍'(19:30) ㉢ 어린이 뮤지컬 <누가 내 머리에 똥 썼어?>(11:00, 14:00, 16:00)	㉢ 2025 정동원 콘서트 <동화>(17:00) ㉢ 팽세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19:00) ㉢ 어린이 뮤지컬 <누가 내 머리에 똥 썼어?>(11:00, 14:00)
12	13	14	15	16	17	18
■ ㉠ 시네클럽 <레볼루셔너리 로드>(13:30)		■ ㉠ 무료 정기상영 <로마의 휴일>(14:00)	■ ㉢ 2025 마티네 콘서트(11:00) ■ ㉣ 성남아트리움 <작곡가 시리즈 : 모차르트 I>(19:30)	㉢ 가정의 달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14:00) ■ ㉢ 연극만원 3 <톡톡>(19:30)	㉢ <미스터트롯 3> 전국투어 콘서트(14:00, 19:00) ㉢ 2025 라이징 스타 1(19:00) ■ ㉢ 연극만원 3 <톡톡>(14:00, 18:00)	㉢ <미스터트롯 3> 전국투어 콘서트(14:00, 19:00) ㉢ 사랑나눔 감성콘서트: 분당원드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19:30) ■ ㉢ 연극만원 3 <톡톡>(14:00)
19	20	21	22	23	24	25
■ ㉠ 시네클럽 <걸어도 걸어도>(13:30)		■ ㉠ 무료 정기상영 <건축학개론>(14:00)		㉢ 2025 성남미래교육 뮤지컬 갈라 콘서트 <페치카>(10:00, 14:30) ㉢ 2025 성남문화예술제 '연극제' (19:30)	㉢ 2025 청소년 유망주를 위한 협연 음악회(19:00)	㉢ 2025 성남문화예술제 '음악제'(19:00) ㉢ 2025 성남문화예술제 '무용제'(17:00)
26	27	28	29	30	31	
㉢ 2025 성남미래교육 뮤지컬 갈라 콘서트 <페치카>(10:00, 14:30)	㉢ 2025 성남미래교육 뮤지컬 갈라 콘서트 <페치카>(10:00, 14:30)	㉢ 2025 성남미래교육 뮤지컬 갈라 콘서트 <페치카>(10:00, 14:30) ■ ㉠ 무료 정기상영 <말할 수 없는 비밀>(14:00)	㉢ 2025 성남미래교육 뮤지컬 갈라 콘서트 <페치카>(10:00, 14:30) ㉢ 아미쿠스 여성 합창단 정기연주회(19:30) ㉢ 김계화 & 박요셉 피아노 듀오 연주회(19:30)	㉢ 2025 성남미래교육 뮤지컬 갈라 콘서트 <페치카>(10:00, 14:30) ㉢ 성남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19:30)	■ ㉢ 밤베르크 심포니, 아쿠프 호루샤 & 김봄소리(17:00) ㉢ 슈퍼윙스 <초능력 곤충 대소동>(11:00, 14:00, 16:30)	

*성남미래교육 뮤지컬 갈라 콘서트 <페치카> 공연은 성남시 중학교와 연계 진행되는 공연으로, 일반인 대상 티켓 오픈이 없는 점 안내드립니다.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		
■ 2025 성남작가조명전 1 <de:BOUNDARY 디:바운더리>	2월 21일~ 4월 27일	반달갤러리
■ 2025 소장품주제기획전 <비워지고, 채워지는>	2월 28일~12월 21일	상설전시실
■ 2025 성남장애예술인그룹전 <This Ability: 또 다른 능력>	3월 14일~4월 23일	갤러리808
■ 2025 성남의 얼굴전 <무해한 이야기>	4월 25일~7월 25일	기획전시실
■ 2025 성남작가조명전 II <김남표: 누가 회화를 두려워하라>	5월 16일~7월 13일	반달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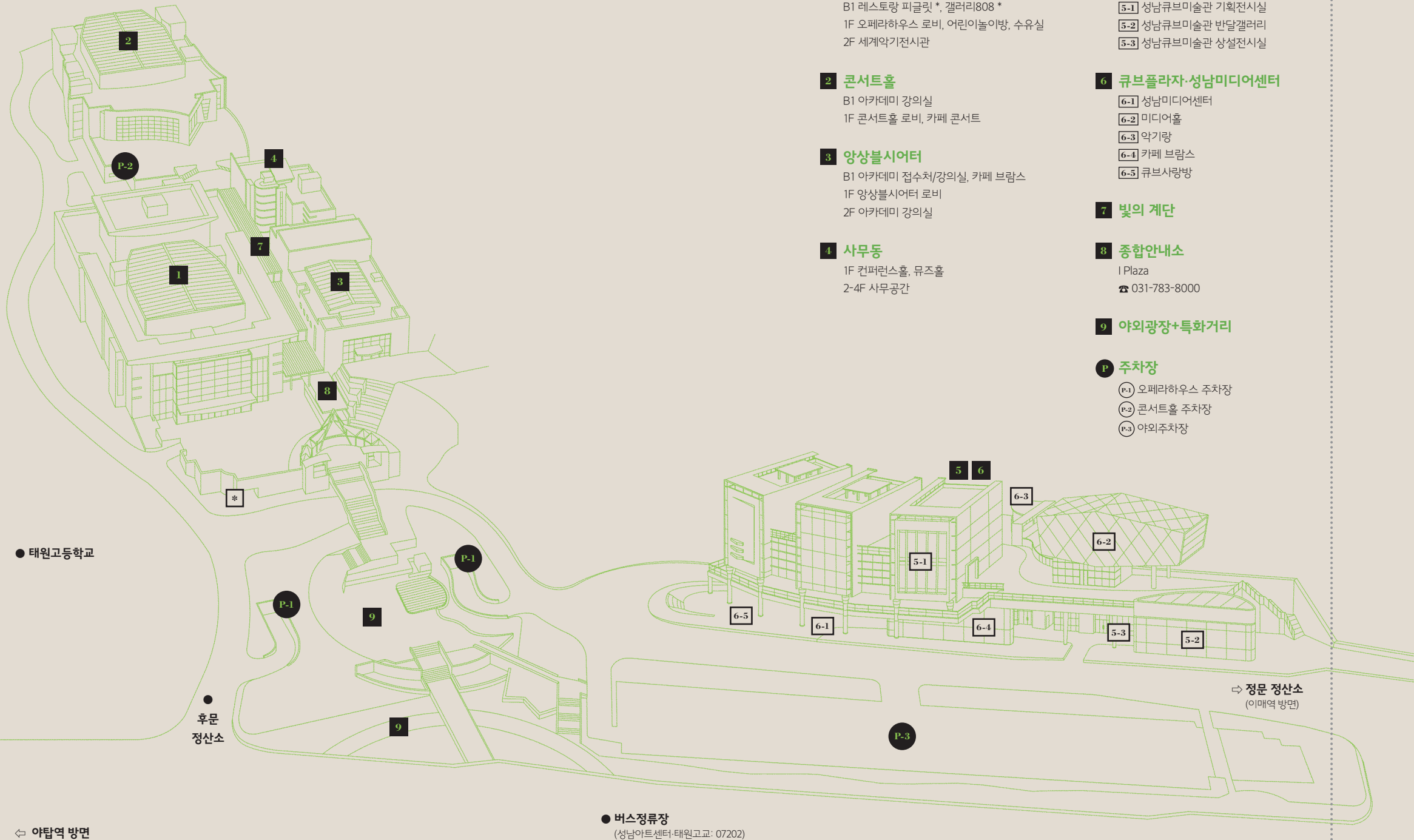
* 전시 관람시간 10:00~18:00 (월요일 휴관)

갤러리808	
제4회 그림읽기 봄날의 설렘전(봄날아트페어)	4월 11일~4월 20일
제9회 더불어전	4월 27일~5월 4일
한국수채화페스티벌전	5월 7일~ 5월 18일
제18회 솜내를 흐르는 숨결전	5월 21일~5월 28일
강박에서 치유로	5월 21일~5월 28일
공간여행展	5월 21일~5월 28일
제39회 성남문화예술제 '성남사진작가협회전'	5월 31일~6월 7일

* 전시 관람시간: 10:00~18:00 (월요일 휴관)

*전시 일정은 아트뷰 발간일(4월 17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성남아트센터 공간 안내



1 오페라하우스

B1 레스토랑 피글릿 *, 갤러리808 *
1F 오페라하우스 로비, 어린이놀이방, 수유실
2F 세계악기전시관

2 콘서트홀

B1 아카데미 강의실
1F 콘서트홀 로비, 카페 콘서트

3 앙상블시어터

B1 아카데미 접수처/강의실, 카페 브람스
1F 앙상블시어터 로비
2F 아카데미 강의실

4 사무동

1F 컨퍼런스홀, 뮤즈홀
2-4F 사무공간

5 성남큐브미술관

[5-1]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
[5-2]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5-3] 성남큐브미술관 상설전시실

6 큐브플라자·성남미디어센터

[6-1] 성남미디어센터
[6-2] 미디어홀
[6-3] 악기랑
[6-4] 카페 브람스
[6-5] 큐브사랑방

7 빛의 계단

8 종합안내소

I Plaza
☎ 031-783-8000

9 야외광장+특화거리

P 주차장

[P-1] 오페라하우스 주차장
[P-2] 콘서트홀 주차장
[P-3] 야외주차장

⇒ 정문 정산소
(이매역 방면)

● 버스정류장
(성남아트센터·태원고교: 07202)

⇐ 야탑역 방면



2025 성남의 얼굴전 <무해無害한 이야기>

2025년 성남의 얼굴전은 성남 지역과 연을 맺은 젊은 작가들이 나타내는 각기 다른 매체와 형식의 예술적 언어에 주목하여 '예술의 무해력'을 탐구한다. <무해無害한 이야기>라는 제목은 작가들이 시각언어로 표현하고자 하는 개인의 서사, 사회적 이야기, 혹은 감각의 경험과 같은 것들이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관람객에게 긍정적이고 무해한 방식으로 전달된다는 의미에서 붙여졌다. 김민혜, 김한나, 박성수, 배운환, 베리킴, 최지원, 홍자영 작가가 담아낸 예술의 무해력을 만나 볼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이다.

장소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
일시 4월 25일(금)~7월 6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
 (매주 월요일 쉼)
티켓 무료 관람
문의 031-783-8142~9



밤베르크 심포니, 야쿠프 흐루샤 & 김봄소리

독일 명문 악단 밤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체코 지휘계를 대표하는 야쿠프 흐루샤가 성남아트센터 무대에 선다. 2015년 흐루샤가 수석지휘자로 취임한 이후 이들은 독일과 체코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세계 무대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공연에서는 스메타나 오페라 <두 과부> 서곡, 김봄소리가 협연하는 브루흐 바이올린 협주곡과 브람스 교향곡 1번을 들려준다.

장소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일시 5월 31일(토) 오후 5시
티켓 R석 150,000원, S석 100,000원, A석 50,000원
문의 031-783-8000



마티네 콘서트 5월

5월 15일 '린츠의 두 남자'는 부산시향 상임지휘자 홍석원과 경기필하모닉 그리고 노이오페라합창단과 4인의 성악가가 음악의 도시 린츠로 안내한다. 여행 도중 린츠에 들려 환대를 받은 모차르트가 단 나흘 만에 작곡했던 교향곡 36번 '린츠', 1백 년 쯤 후 린츠에서 오르가니스트로 활동한 브루크너가 작곡한 <이새의 뿌리에서>와 <테 데움>을 들려준다.

장소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일시 5월 15일(목) 오전 11시
티켓 전석 25,000원
문의 031-783-8000



성남아트리움 작곡가 시리즈:
모차르트 I

성남아트리움이 '작곡가 시리즈' 기획 3년 차를 맞아 모차르트의 대표작을 선보인다. 오는 5월, 그 첫 공연은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3번과 교향곡 40번을 준비했다. 김성진이 지휘하는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 2015년 퀸엘리자베스 콩쿠르 바이올린 부문에서 한국인 최초로 1위를 차지하며 이름을 알렸던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의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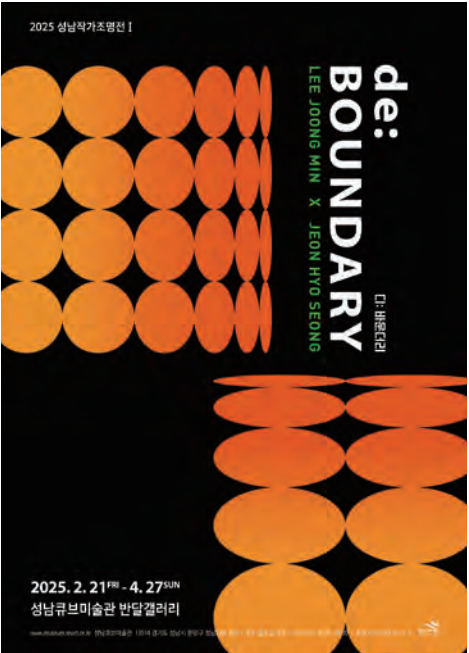
장소 성남아트리움 대극장
일시 5월 15일(목) 오후 7시 30분
티켓 R석 35,000원, S석 25,000원
문의 031-783-8000



연극만원 3 <톡톡>

평단과 대중에게서 인정받은 연극을 단돈 1만 원에 만날 수 있는 연극만원滿圓 시리즈. 올해에는 삶의 여정 속에서 서로를 비춰 주는 동반자의 존재와 그들이 만들어 가는 희망의 빛을 담은 연극 다섯 편을 소개한다. 5월에 만날 작품은 (주)연극열전 제작, 로랑 바피 원작의 <톡톡>. 강박증 치료의 명의를 찾아온 여섯 명의 강박증 환자들이 펼치는 좌충우돌 코미디가 유쾌하게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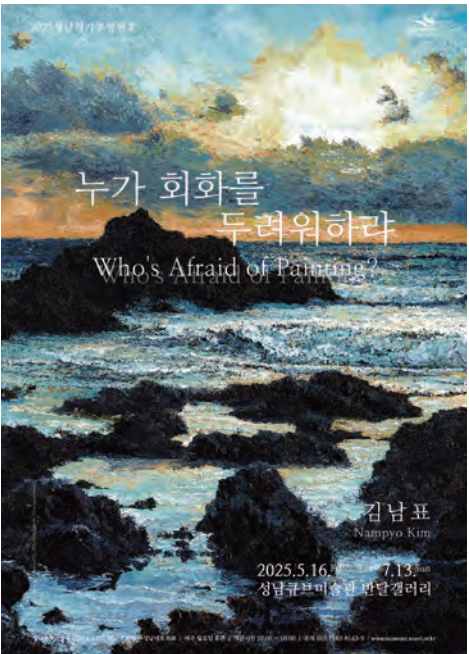
장소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일시 5월 16일(금)~5월 18일(일)
오후 7시 30분(금), 오후 2시·6시(토) 오후 2시(일)
티켓 전석 10,000원
문의 031-783-8000



2025 성남작가조명전 I
<다:바운더리>

성남작가조명전은 지역의 역량 있는 청년·중견 작가의 작품세계를 집중 조명하고, 작가의 예술관이 세상과 적극 소통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자 기획된 전시다. 올해 성남작가조명전의 첫 번째 전시는 청년작가 이종민, 전효성의 <다:바운더리>로, 기술과 예술의 상호작용이 빚어내는 경계 너머의 가능성을 경험할 수 있다.

장소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일시 2월 21일(금)~4월 27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
(매주 월요일 쉼)
티켓 무료 관람
문의 031-783-8142~9



2025 성남작가조명전 II
김남표 <누가 회화를 두려워하라>

올해 두 번째 성남작가조명전 <누가 회화를 두려워하라>는 동시대의 다변화된 미술 매체 속에서도 회화의 본질에 도달하기 위한 끊임없는 탐구를 이어 가는 중진 작가 김남표의 예술 세계를 조망한다. 작가의 신작 회화 2점을 비롯하여, 2024년 프랑스 파리 시테 레지던시 입주작가 활동 당시 제작한 수채화 드로잉 연작이 처음 공개된다.

장소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일시 5월 16일(금)~7월 13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
(매주 월요일 쉼)
티켓 무료 관람
문의 031-783-8143



2025 소장품주제기획전

<베워지고, 채워지는>

2025 소장품주제기획전은 지난해 성남큐브미술관이 수집한 소장품을 엄선, 하나의 주제로 엮은 주제 기획전이다. 임남진·김민호·김형욱·강승혜·박경·임철민·신서운·지희·김·김여운·박근주·김래현 작가까지, 다채로운 창작세계를 지닌 작가들의 시선을 통해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탐구하고 삶을 재조명한 작업을 선보인다.

장소 성남큐브미술관 상설전시실
일시 2월 28일(금)~12월 21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
(매주 월요일 쉬)
티켓 무료 관람
문의 031-783-8142~9



2025 성남장예예술인그룹전

<This Ability: 또 다른 능력>

<This Ability: 또 다른 능력>은 장애예술인의 독창적인 미적 언어와 예술적 역량으로 구축한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다. 1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아우르는 참여 작가 10인(권순옥·김태영·박규현·송진현·윤동규·이도원·이마로·이찬영·최봄이·황진호)이 저마다의 고유한 표현 방식과 감각을 담아낸 작품 50여 점을 선보인다.

장소 성남아트센터 갤러리808
일시 3월 14일(금)~4월 23일(수) 오전 10시~오후 6시
(매주 월요일 쉬)
티켓 무료 관람
문의 031-783-8142~9

성 남 아 트 센 터
Seongnam Arts Center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성남아트센터 후원회는 성남아트센터에 대한 후원 활동을 통해 기관의 성장을 돕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2006년 10월 발족했습니다. 이를 위해 성남아트센터의 목적사업을 지원하는 중장기 발전기금 조성과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자체 진행하며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법인회원

온하수회원

박지향 (주)유엔젤 부회장 /
(재)유엔젤보이스 이사장

달무리회원

신현규/김복선

탄천회원

강영귀/김연경 이노엘 대표
김진명/심정자 분당 예치과병원 원장
서창우/석남연 한국파파존스(주) 회장 /
동양연우보험대리점 대표
손경호/이동순 (주)경동 대표이사 회장
손일선/김상일 태평염전 회장 / 태평염전 사장
안봉혁/여윤경 유씨티코리아(주) 대표이사 회장
이완근/홍은희 (주)산성이엔지 회장
이재환/한정의 (주)워즈코리아 설립자 / 명예CEO
정대혁/김대원 나우(주) 대표이사 회장

철쭉회원

김부경/김모민 동서메디케어(주) 대표이사 /
김상한/오다영 동서메디케어(주) 이사
박동순/강승희 아람휴비스(주) CEO
변봉덕/이매연 (주)코맥스 대표이사 회장
우문식/조남숙 에스엔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이상우/강지선 (주)인베이드투자자문 사장 /
부동산라이프 대표
이서규/황해숙 (주)팍셀플러스 대표이사
(사)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성남상공회의소
탄천문화포럼 100인회

개인회원

무지개회원

김경자/박성희 꼬모아트웍션 이사

탄천회원

박철/하정진 아이파트너(주) 대표이사
여영동/이육자 前 (주)씨너스 회장
故최계순/김순자 (주)반포산업 대표이사

철쭉회원

강정원/정병태 (사)한국미술협회 상임고문,
프랑스 작가협회 회화분과위원
강효주/이동연 필립강갤러리 대표,
한국문학경제연구소 소장

김길복/이상숙 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 공인회계사
김동술/민인선 (주)중합건축사사무소 담 대표이사 /
(주)예장디앤씨 이사

김명자/이승오 산후조리원 라크렘 대표
김문기/김인숙 (주)금화 대표이사
김연태/이주숙 (주)비스타글로벌 대표
김영수/원종순 前 문화체육부 장관,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이사장
김중현/정승희 (주)특수건설 대표이사 회장
김진환/이화용 법무법인 새한양 대표변호사,
前 서울지검장

김태호/김경자 前 농협중앙회 이매동지점장
남궁원/김순미 남송미술관 관장 / 예원유치원장
남선우/정정섭 국제로타리 3600지구 前 총재
마희자/조득환 서진공방 대표 /
(주)조영실업 대표이사
박미경/강대식 중원구 보건소 약사 / (주)평화기업 이사
배지영/윤영민 로즈피부와 청담점 원장
백종훈/지용애 한국디지털콘트롤(주) CEO /
송파중학교 교사

서정림 (前)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손의명/손외자 치과 의사 / 한국화가
故송자/탁순희 前 대표 이사장
신동화 경기일보 상무
신상진 오픈영/이승희 신명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회장
유성희/유성운 (주)인홍 대표이사 /
평택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
윤영상/박인영 (주)이글프로세스 콘트롤스 대표이사
이연옥/조상수 성남정자초등학교 교사 /
낙원중학교 교장

이경화/이정우 (사)오연문화예술원 이사장
故이성무/김복기 前 한국국사문화연구원장,
국사편찬위원회
이은화/정인희 (주)연어문화원 대표이사
이임수/이화자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예가
故이정식/고옥주 前 (주)서울문화사 대표이사 사장
故이종덕/故김영주 前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창립자

이지은/김순건 음악인 / 하림상사 대표
이호순/김명순 세일종합기술공사 대표이사 /
(사)한국발레협회 부회장
임상규/정효정 (주)대일소재 상무 / 약사
임인선/채인호 대림대학교 스포츠재활학부 교수 /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교수

임현주/김윤선 AMK
장세영/김준식 한화엔엑스엘디 대표이사 /
잡코리아 CTO
장형환/임경희 N스페이스 회장 / N 갤러리 관장
전명자/김정길 서양화가 / JKKIM & Co. INC 대표

정성조/심윤경 (주)패션아일랜드 대표 /
D&M Space 대표
정승립/한정복 세일기공(주) 대표
정용석/이승설 성남FM방송국 대표
정은경/박민걸 모란새로운악국 대표 /
명당한의원 한의사
정은기/박은숙 前 국립서울병의원장 / 서양화가
정인택/유경희 신한라이프 명예부사장
조남주/이규칠 미술단체<繪과 色> 前 명예회장
최병주/박인수 세무법인 청담 대표,
(재)성남이로운재단 이사장
최병오/박종길 패션그룹형지 회장
최은희/현형모 안양예술고등학교 이사장
(주)삼화 F&F 회장
허용무/구은희 (주)기람산업 대표이사 회장
故하침/홍애자 前 상아제약 회장 / 수필가
황광석/조영순 (주)케이씨피 대표

이매회원

김선애 (재)사랑정원 이사장
박영일 (주)글로벌미트플랫폼 GMP 대표이사
서미라 21세기 미금의원 원장
윤향남 화가
전동욱 (주)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
사무소 부사장
주재근 정효문화재단 대표

까지회원

김상수 (주)UBE모터스 고문
김성민 운 중농원갈비 대표
김형태 하팅코리아(주) 대표이사
목영애 단국대학교 문화예술학과 교수,
(사)대한문화예술진흥협회
이사장
박미영

백선정 (사)코리아뮤직소사이어티 대표이사
오미주 성악가
우주호 (주)리크루즈 여행 대표이사
이기영 (주)한솔교육 대표이사
이윤이 HCS 대표
정희재 지휘자
조현우 최진옥 변호사

명예회원

박명숙 前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신선희 前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무대미술가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임원진

회장 강효주 부회장 황광석, 김상일
이사 김연태, 박동순, 서정림, 정대혁,
최은희, 신상진, 윤영상
감사 김길복, 김문기

후원회 사무국

전화 031-783-8033 이메일 mecenat@snart.or.kr
성남아트센터 후원회는 문화예술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분께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후원회 가입 안내 바로가기

성남문화재단, 제8대 윤정국 대표이사 취임



성남문화재단 제8대 대표이사에 윤정국 전 前 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취임했다. 재단은 지난 2월부터 공모 절차를 거쳐 윤정국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했으며, 임기는 2년이다.

윤 대표이사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에서 석사 학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공연예술경영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3년부터 약 20년간 동아일보 기자로 재직하며 문화부장을 역임했고 이후 충무아트센터 사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김해문화의전당 사장과 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또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초빙교수로도 활동하는 등 문화예술 현장과 학계를 두루 거친 예술경영 전문가다. 특히 김해문화의전당 사장과 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 재임 시절에는 공연시즌제 도입, 문화도시 사업 추진을 통한 김해시 법정 문화도시 선정, 창작오페라 <허황후> 제작과 초연 등 굵직한 성과를 이룬 바 있다. 4월 2일(수) 성남아트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윤 대표이사는 “문화적·기술적 잠재력이 큰 성남에서 예술과 사람, 기술과 도시가 어우러지는 ‘따뜻한 디지털 문화도시’를 구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며 “문화예술로 행복한 성남시민의 삶을 위해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4월 2일(수) 오전, 신상진 성남시장(사진 우측)이 윤정국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무해한 이야기

無害

2025 성남의 얼굴전

2025. 4.25.-7.6.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

김민혜
김한나
박성수
배윤환
베리킴
최지원
홍자영

성남큐브미술관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매주 월 휴관 | 개관시간 10:00-18:00 | 문의 031-783-8142~9 | museum.snart.or.kr

성남문화재단
SEONGNAM CULTURAL FOUNDATION